

# 만남

# 03

2019

통권 542호

특 집 | 3.1운동 100주년

김운성 목사 위임 1주년 인터뷰





## 주여 우리로 생명을 기르게 하소서 | 교육부 신년 교사기도회

교육부(부장 이영철 장로)는 2019년 표어를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육부’로 정하고 1월 19일(토) 오후 3시, 50주년기념관 지하2층 드림홀에서 교육부 14개 부서를 섬기는 교사 450여 명이 참석하여 교사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김운성 위임목사는 “나의 존재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눈물의 기도 외에는 없다”며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고리를 다음세대로 이어가는 사명을 다하자”고 전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이상헌 집사

### 표지설명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으로 나라를 섬긴 '3·1독립선언서' 서명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의 기독교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인물에 대한 자료는 별첨을 참고한다.  
일러스트 김명길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 교회표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딤후 2:1~2)

# 만남

## C O N T E N T S

### 이달의 말씀

역사는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 김운성 02

### 특집 3.1운동 100주년

3.1운동과 기독교학교 | 박상진 04

3.1운동의 진앙과 한국기독교 | 이치만 08

백년의 외침, 복음의 정신 | 백성우 12

김운성 목사 위임1주년 인터뷰 14

### 연중기획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

자라남, 그 자연스러움(Ⅱ) | 김응신 28

### 다음세대

Z세대 키워드 이해하기 | 이준영 32

복음의 랩소디 | 장예준 35

후 아유(who are you) | 최호재 36

업데이트 됐어요!! | 윤영주 38

###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 백용욱 39

### 영락의 울타리

사순절, 받아들이기와 내려놓기 | 박동진 41

신임 부목사 7인 인터뷰 44

주님의 거룩한 뜻에 나팔로 사용되어지길 | 임관희 50

온전한 순종으로 담대하게 감당하겠습니다 | 이지선 52

### 야곱의 우물가

산티아고 순례길에 동행하신 하나님 | 고윤숙 5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각 56

### 봉사와섬김

영혼의 온전함 위에 육체적 강건이 | 박일환 58

### 문화광장

안드레, 많은 사람을 예수께 인도한 사람 | 박정관 60

3월의 상영작 61

### 교회소식

2019 제직부흥회 외 62

제14기 영락어머니학교 안내 65

영락역사자료 66

새가족 환영 67

목회력/편집장 레터 68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 2019년 3월호 통권 542호

발 행 2019. 3. 1.

발 행 인 김운성

편 집 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임대현 조성일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 역사는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 윤 성 위임목사

영국인 탠디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영국 최고 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20여 년이나 지난 1938년 어느 날, 탠디는 챔벌린 총리 사무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독일 총통 히틀러가 탠디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챔벌린은 히틀러와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탠디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탠디는 프랑스의 전장에서 독일군과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탠디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고, 독일군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군이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당시 챔벌린 총리는 히틀러의 별장에 초대를 받았는데, 히틀러는 벽에 걸린 그림을 보여 주면서, 부상당한 전우를 업은 인물이 20여 년 전 자신을 살려준 영국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날 자신이 산 것은 신의 섭리 때문이라면서, 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탠디는 총리실에서 걸려온 전화로 자신이 살려준 인물이 독일 총통이 된 것을 알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1939년에 전쟁을 일으켜 수천만 명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던 전쟁광이 된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탠디는 부상자와 무기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발포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원칙이 가져온 결과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1977년에 8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악마인 히틀러를 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만약 그가 히틀러를 쏘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고, 유대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그가 히틀러를 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일일까요? 이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엇갈

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후에 탠디는 자신을 화  
장해서 히틀러를 놓아준 바로 그 장소 근처에 있  
는 프랑스 땅의 영국군 묘지에 묻어 달라고 유언  
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일이 한 사람 탠  
디 곁을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  
다. 역사는 그렇게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역사는  
멀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일의 삶  
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어느 날 다메섹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직  
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만  
나 안수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찾아  
가 만나 기도해 주라는 사울이란 사람이 얼마나  
악명 높은 핍박자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  
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를 핍박한 일과 다  
메섹에 온 목적도 역시 동일한 것임을 아나니아  
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망설  
이는 아나니아에게 재차 권면하셨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들에게 전할 그릇이며,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  
여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안  
수하여 다시 보게 했고, 사울은 세례를 받고 주님  
의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아나니아는 직접 복음전도자로 세  
계를 누빈 것은 아니었지만, 사울 한 사람에게 안  
수함으로써 위대한 복음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나니아도 사울이 장차 놀라운 복음의  
사람 바울이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위대  
한 복음의 역사가 아나니아 곁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일상이 후에 어떤 일로 발전하게 될지 모  
릅니다. 부산에서 몇몇 목사님이 식사 교제 중에  
나눈 이야기가 부산성시화의 기틀이 된 일이 있  
습니다. 그 날 부산 복음화를 위해 목회자들의 모  
임을 만들기로 했고, 현재 그 모임의 목사님들이  
부산 복음화를 위한 새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1운동도 당  
시 선배들에게는 일상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도 어떤 목적으로 의분을 품고 뛰쳐나가는 이들  
이 있는 것과 같았겠지요. 그런데 그 일상의 일이  
민족사에 거대한 발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매일의 삶을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사는 것이 위대  
한 역사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사명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대각성운동이  
영락교회와 한국 교회에 큰 자취를 만들 것이며,  
기독교와 기독교학교들이 3·1운동을 위해 기여했  
던 역사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수고들이 후에  
아름다운 민족사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감  
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적극  
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소한 몸부림  
이 내일의 위대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결코 작지 않으며, 우리가 하는 일  
역시 작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 안에 큰 나무가  
들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남**

## 3·1운동과 기독교학교



박상진 교수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 들어가는 말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100년 전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3·1운동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기억해야 할 역사의 큰 획이며, 대대손손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민족과 나라 사랑의 원천이다.

3·1운동이 가능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기독교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앙에 근거해 분연히 일제에 항거했기 때문이란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3·1운동은 ‘기독교학교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일제에 항거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일으켰는지, 그 자취를 더듬어보면 서 오늘의 기독교학교도 그 신앙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와 같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역할

3·1운동은 온 겨레가 함께 참여한 민족운동이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

서 일어난 만세운동만이 아니라 그 이후 수개월에 걸쳐 우리나라 전역과 세계 각 지역에서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대해 저항하며 민족의 독립을 선언한 운동이다. 특히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3·1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모두 종교인이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인, 천도교인이 15인, 불교인이 2인이다. 당시 천도교인이 300만 명인 것에 비해서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1.5%에 불과한 26만 명 남짓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큰 비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은 한국 교회와 함께 ‘기독교 학교’가 주축이 된 기독교 운동이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기독교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각 지역마다 3·1운동을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885년 한국에 온 미국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미국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를 비롯해 많은 선교사들이 전국 곳곳에 기독교학교를 설립했다. 한국 토착 교회와 교인들도 지역마다 기독교학교를 세웠다. 한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교회는 미국 북장로회, 북감리회, 남장로회, 남감리회 순으로,



북장로회 선교부는 서울, 평양, 선천, 대구에 모두 8개의 미션스쿨을 설립했다. 서울의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 평양 숭실학교와 숭의여학교, 선천 신성학교와 보성여학교, 대구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다. 남장로회는 주로 호남지역에 미션스쿨을 설립했는데, 전주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광주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군산 영명학교와 뽕볼딘여학교, 목포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순천 매산학교와 매산여학교 등이다. 캐나다장로회가 부산, 경남 지역에 설립한 일신학교, 명덕여학교, 의신여학교 등과 위 학교들은 3·1운동의 지역별 진원지가 됐다.

3·1운동에 당시 기독교학교들이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서울에서는 경신학교,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등의 기독교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3·1운동을 주도했다. 탑골공원에서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되는 독립선언문을 읽어 내려간 정재용은 경신학교 졸업생이었다. 3·1운동의 주역으로서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했던 김규식 선생도 경신학교 졸업생이었다. 이 경신학교 졸업생들과 재학생 100여 명이 3·1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계기로 경신학교를 ‘혁명자 양성소’로 낙인찍어 수업과 신입생 선발을 불허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게 된다. 배재학당에서는 김진호 선생의 지시로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각국 공·영사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배재학당 기숙사는 3·1 독립만세 시위운동의 모의장소로 사용됐다. 이화학당은 유관순 열사의 모교로, 3·1운동 당시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은 소복을 입고 대한문으로 행진했다. 유관순을 포함한 5인 결사대는 기숙사 뒷담

을 넘어 남대문 쪽으로 달려가 만세운동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3월 10일 이화학당에 휴교령이 내려진다. 정신여학교 졸업생 김마리아는 3·1운동의 기폭제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도쿄 유학생들의 1919년 2·8 독립선언서 낭독에 깊이 참여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2·8 독립선언서를 국내로 전달해 3·1운동을 점화시키는 불씨가 됐다. 정신여학교 기숙사 여학생 70명은 고종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검은 당기에 상복을 입고 일제에 저항했으며, 3월 5일에는 대한문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고, 이에 주를 비롯한 4명의 교사들과 60명의 학생들이 포승돼 끌려가게 된다.

학생들의 만세시위가 극렬해지자, 총독부는 서울의 각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방 출신인 학생들이 귀향하면서 오히려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화학당 여학생 김애사는 동교생 20명을 이끌고 3월 3일 평양의 만세시위에 가세했고, 당시 16세였던 유관순은 4월 1일에 고향인 충남 천안으로 내려가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마침내 총독부에 의해 체포

종로에서 여학생들이 만세 시위에 앞장섰다. | 사진제공 독립기념관





덕수궁 앞(왼쪽), 미국영사관 앞(가운데)에서 만세 시위가 계속되었다. 일경은 3·1 만세운동참가자들에게 용수를 쏘워 압송했다(오른쪽). | 사진제공 독립기념관

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게 된다. 평양에서는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숭덕학교, 광성학교 등이 연계해, 3월 1일과 3월 4일 대규모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숭의여학교 교사 박충애는 시위를 북돋우기 위해 독립가를 작성, 배포했으며, 숭실학교 학생과 교사는 찬송가를 연주하며 행진하면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평안남도 선천에서는 보성여학교 학생들이 신성학교 학생들과 연계해 3월 1일 만세시위에 가세했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선천군 각 동네에 배포했다. 정주에서는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가 3·1운동의 중심이 됐다. 남강은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연합해 3·1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서명자 순서로 갈등을 빚을 때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걸 죽는 순서인데 누굴 먼저 쓰면 어때? 손병희를 먼저 써”라며 양보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3월 2일에는 오산학교 교정에 교직원, 졸업생, 학생, 교인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뿌리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는데 시위행렬은 1,300명가량 됐다. 3월 31일에는 일본 헌병들이 오산학교를 불태우고 결국 오산학교는 1년 반 동안 폐교됐다.

대구 지역은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가 협력해 3월 8일 대구 서문 밖에서 만세시위를 했다. 계성학교 학생들은 ‘해성단’이라는 비밀 결사체를 만들어 일제에 항거했다. 목포에서는 4월 9일에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등의 기독교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만세시위가 일어났으며, 전주에서는 3월 12일에 기전여학교 학생들이 신흥학교 학생들과 연계해 만세시위를 주도했고 이로 인해 남녀학생 70여 명이 체포됐다. 광주에서도 기독교학교인 수피아여학교와 숭일학교의 학생들이 주도하고, 기독교인들이 호응해 만세시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남녀학생 71명이 구금됐다. 이외에도 전국의 각 지역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3·1만세운동을 주도해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에 크게 공헌했다.

### 3·1운동의 동인,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

기독교학교가 3·1운동의 발발과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학교가 전국 곳곳에 설립돼 있었고, 명실상부한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학교들은 외



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든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었든 분명한 건학이념이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신앙을 지닌 교양인을 양성해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다. 이 기독교학교들은 무엇보다 분명한 신앙교육을 실시했다. 성경수업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신앙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 대부분의 교과목들도 기독교신앙과 연결됐다. 음악시간에는 ‘주의 군대여 앞으로 나가자,’ ‘다 깨어라 주의 군대여,’ ‘그리스도 군병가’ 등의 찬송가를 부르며 신앙고백과 함께 민족정신을 고취했다. 이처럼 분명히 신앙에 기초한 건학이념과 그에 따른 신앙교육이 3.1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일찌감치 기독교학교가 일제 총독부가 조선을 지배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을 알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학교를 탄압했다. 1908년에 반포된 ‘사립학교령’,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 그해 10월에 공포된 ‘사립학교규칙’, 그리고 1915년 3월에 공포된 ‘개정사립학교규칙’ 등은 모두 기독교학교가 신앙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종교와 교육을 분리해 “학교에서 종교상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기독교학교에서 성경과목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탄압했다. 기독교학교들은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 저항했으며, 이러한 저항이 폭발한 것이 3.1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개신교를 의미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3.1운동의 밑거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3.1운동 당시의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은 단지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신앙

과 삶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었다. 한경직 목사가 스승 고당 조만식 선생을 일컬어 “그분의 교육은 24시간 교육이었지요”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고당의 교육이 ‘삶이 교육’이었음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앙과 민족정신에 투철했고 몸소 본을 보인 교사들이 교육 의지를 지니고 학생들을 가르쳤기에 학생들은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나라를 사랑했기에 일제의 압제에 저항하며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다. 학생들도 자기 영달만을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실력을 닦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

## 나가는 말

3.1운동 100주년은 오늘의 기독교학교가 다시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있다.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준공립화’ 돼버린, 이름뿐인 기독교학교가 아닌, 명실상부한 기독교학교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00년 전의 기독교학교들이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해 민족의 일꾼들을 키워냈던 것처럼 살아 있는 기독교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회복하며 기독교 신앙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립하고, 그러면서도 민족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공공성을 함양하는 기독교학교가 돼야 할 것이다. 100년 전 기독교학교들이 불씨가 돼 3.1운동이 타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기독교학교들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불씨가 돼 하나님 나라 운동이 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한다. **만남**

## 3·1운동의 진앙(震央)과 한국기독교

3·1운동은 일제의 한국강점과 무단통치와 경제적 수탈과 문화적 억압 등의 민족적 제 모순에서 출발한 전 민족적·계층적 민족독립운동이었다. 1919년 3월 1일에 발발해 약 1년간, 총 1만 5,000회의 만세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고, 연 인원 1,000만 명이 참여했다. 3·1운동은 그 양상에 있어서도 남녀노소의 다중 다발적 만세시위운동, 자주적 민족대표기관으로서의 임시정부 수립운동, 해외에서의 외교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3·1운동은 독립선언서에도 나타났듯이 비폭력·평화운동을 표방하며, 세계사적 시민운동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3·1운동은 항일민족운동의 활화산이며 우리 민족사의 금자탑이라고 말할 수 있다.

3·1운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교단체, 즉 천도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연합해 펼쳤다는 데 있다. 기독교는 태동부터 준비단계, 확대단계 등 전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다. 그런 특성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3·1운동의 모태는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자유롭고 국제정세에 대응이 신속한 해외에서 준비됐다. 평양신학교를 중퇴하고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를 지낸 여운형은 일련의 국제정세의 변화가 독립운동의 기회라고 판단해 중국 상해에서 1918년 8월에 ‘신한청년당’을 결성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 11일로 종결하자, 윌슨은 강화회의에 중국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크레인(Charles R. Crane)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했다. 크레인이 상해에 도착하자, 한 연설회에서 ‘오는 강화회의에서는 전후의 식민지 처리문제가 피억압민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될 것이며, 중국도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집회에 출석한 신한청년당의 대표인 여운형은 크레인을 방문해, 일본의 한국병합 이래,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억압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번 기회에 한국인의 대표를 강화회의에 파견해 한국인의 독



이치만 교수  
장신대 한국교회사





1919년 4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자유인대회 시위행진.  
사진제공 독립기념관

립의사를 발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크레인은 힘닿는 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크레인과의 면담에서 고무된 여운형은 긴급 당원회의를 열고 김규식(金圭植)을 한국대표로 파리에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 언더우드(H. G. Underwood) 선교사 가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규식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언더우드가 설립한 새문안교회의 장로를 역임하다가 ‘105인 사건’의 여파로 중국으로 망명해 있었다. 그리고 김규식은 1919년 2월에 상해를 출발하면서 신한청년당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내가 파리에 파견되더라도 서구인들이 내가 누군지 알 리가 없다. 일제의 학정을 폭로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해야 된다. 파견되는 사람은 희생당하겠지만 국내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야 내가 맡은 사명이 잘 수행될 것이다.”

이 발언은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가장 근원적인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의 파리강화회의 파견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내, 일본, 만주 및 노령에 각각 밀사를 파견했다. 국내로 잠입한 선우혁·김철

· 서병호(서상륜 장로의 아들)· 김순애(김규식의 처)· 백남규 등은 국내의 지사들과 접촉해, 김규식의 파리강화회의 참가계획을 알리고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종용했다. 또한 신한청년당 내의 일본 유학생들을 일본으로 파견해 일본 내 유학생과 접촉하게 했다. 그리고 여운형은 만주 및 노령지역의 독립운동가들과 회합해 독립운동의 절호의 기회를 설명하고 동의와 지원을 얻었다.

한편 재일 한국인 유학생들은 동경의 ‘조선기독교청년회’(동경조선YMCA)와 ‘조선유학생학우회’를 중심으로 독립의식을 고취하면서 결속을 다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간행된 미국계 영자신문 『The Japan Advertiser』를 통해, 재미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을 크게 자극했다. 이 무렵 상해의 신한청년당으로부터 일본에 파견된 인사로부터 상해에서의 독립운동의 경과가 알려졌다. 학우회는 독립선언을 추진할 조직으로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했다. 조선청년독립단은 독립선언서를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했다. 1919년 2월 8일, 조선청년독립단 명의의 ‘민족대회소집청원서’ 및 ‘선언서’, ‘결의문’을 일본의 회, 주일각국 대·공사관 및 내외의 신문사에 송부했다. 그리고 오후에 조선기독교청년회(YMCA) 회관에서 웅변회를 가장한 집회를 개최하고, 유학생 수백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일본제국의 심장 동경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다.

국내에서 일어난 운동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장로교 교인이었던 선우혁은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고난을 겪은 뒤 중국 상해로 망명했다. 상해 신한청년당에 가맹한 선우혁은 독립운동에 관한 밀지를 받고 1919년 2월 초 국내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절 기념식(왼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도 3·1절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오른쪽). | 사진제공 독립기념관

잠입했다. 귀국 후 선우혁은 우선 ‘105인 사건’의 옛 동지인 양전백(장로교 증경 총회장) 목사, 이승훈 장로를 차례로 만나고, 또한 평양 지방의 기독교계 유력자 길선주 목사를 만나서 당시의 국제정세와 이에 따른 독립운동을 논의해 적극적인 찬동을 얻었다. 얼마 후 서북지방의 기독교계 지도자인 강규찬(산정현교회) 목사, 김성탁(송오동교회) 목사, 변린서(장대현교회), 도인권(남감리교), 이덕환(장대현교회) 장로, 김동원(산정현교회) 장로, 윤원삼(장대현교회) 집사, 윤성운(남문밖교회) 그리고 평양예수교서원 총무 안세환과도 회합을 갖고 독립운동 및 의연금모집에 관해 논의하고 상해로 돌아갔다. 이에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계의 독자적인 독립운동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양시내의 기독교인과 기독교계학교와 관립학교의 기독교학생들을 총동원해 독립운동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사 측 교섭은 윤원삼, 학생 측 교섭은 안세환, 학생 동원은 창동교회 조사 이보식이 맡기로 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천도교가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계획·추진하고 있었다. 1919년 1월 25일(혹은 26일)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다만, 기독교 등의 종

교계와 사회명망가 등을 망라한 민족대연합의 대대적인 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기독교와의 교섭은 평북 정주의 이승훈과 접촉하도록 했다. 천도교의 독립운동 계획을 알게 된 이승훈은 천도교-기독교 합작을 추진했다. 이승훈은 선천의 지방사경회에 참석하고 있던 양전백 목사, 유여대 목사, 김병조 목사, 이명룡 장로 등과 긴급 회합해 이를 알렸다. 이에 평양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독교계 독자적인 독립만세운동은 원래 계획을 수정해 서울의 감리교, 천도교와도 연합하는 민족대연합의 독립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3·1운동에서의 기독교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3·1운동이 기획되고 준비되는 과정 하나하나에 기독교인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3·1운동이 발발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당시 총인구에서 기독교인은 1.8%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3·1운동 전체 구속기소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3분의 1을 상회하는 결과는 기독교가 3·1운동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1919년 당시 매우 작은 규모의 외래종교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3·1운동을 통해서 민족사회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만남**

## 3·1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



성명	출생/사망	직분 및 직책	소속 교회 및 기관
이명룡	1872-1956	장로교 장로	덕흥교회
김병조	1877-1948	장로교 목사	삼일운동 발발 직후 상해로 망명
이필주	1869-1942	감리교 목사	정동제일교회
신석구	1875-1950	남감리교 목사	수표교교회
김창준	1889-1959	감리교 전도사	종로감리교회 전도사
오화영	1880-1960	남감리교 목사	종로감리교회
이갑성	1889-1981	세브란스병원 직원	세브란스병원교회 집사
이승훈	1864-1930	장로교 장로	정주 오산교회, 오산학교 설립자
정춘수	1873-1953	남감리교 목사	원산 상리감리교회
박희도	1889-1952	YMCA 간사	종로감리교회 전도사
양전백	1869-1933	장로교 목사	선천 북교회, 장로회 증경총회장
길선주	1869-1935	장로교 목사	평양 장대현교회
신홍식	1872-1939	감리교 목사	평양 남산현교회
최성모	1874-1937	감리교 목사	해주 남본정교회
유여대	1878-1937	장로교 목사	의주 동교회
박동완	1885-1941	감리교 전도사	정동제일교회, 기독교신보사 서기



# 백년의 외침, 복음의 정신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소개하며

### 기념사업의 취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송국들도 저마다 이와 관련한 다큐를 만들고, 신문사들도 기획 기사를 내는 등 점점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이 3·1운동과 연관해 상해임시정부를 다녀오는 역사여행 코스를 개발해 진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대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되는 3·1운동에 대한 최근의 역사적 전수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3·1운동은 기독교인들과 교회 그리고 기독교학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를 통해 민족대표 33인을 하나로 모은 것이 가능했으며, 수많은 기독교인과 교회 등을 통해 운동이 퍼져나갔고, 무엇보다 기독교학교는 독립운동의 시작뿐 아니라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핵심 통로였습니다. 당시의 교회와 기독교인들, 특히 믿음의 다음 세대라 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 학생들은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 민족의 참된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는 국가적 3·1운동 기념사업이나 학술적 연구들마저도 3·1운동에 대한 개신교회의 역사적 역할과 의미를 상당 부분 도외시킨 채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영락교회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여러 교회, 기독교학교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장로회신학대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3.1운동기념 전국기독교학교 대회’ ‘3·1운동기념 역사전시’ 등 뜻깊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를



백성우 목사  
교육전담



통해 100년 전에 3·1운동으로 보여준 교회의 역할과 그 바탕이 된 기독교적 민족애 정신을 기억해 되살려서 현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 현 시대의 교회와 세상에 기독교적 민족애를 되살리고자 기도로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업을 위해 영락의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해 지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3·1 운동 100주년 기념 주요사업

- ▶ 3·1 운동 기념 전국기독교학교 대회: 2월 21일 (목), 영락교회 베다니홀
- ▶ 3·1 운동 기념 역사전시관: 2월 21일부터 (영락교회 친교실 등), 장로회신학대학교, 창동염광교회
- ▶ 교육교재 개발 및 배포
  - ① 전국 기독교학교 400여 개교, 30만 명의 학생들을 위한 삼일운동의 기독교 공헌과 의의를 소개하는 교육교재 개발 및 제작, 배포 (아동용, 청소년용, 지도자용)
  - ② 교회 아동부와 청소년부를 위한 삼일절 공과 교재 제작 및 배포 (아동용, 청소년용, 지도자용)
- ▶ 학술연구: 3·1 운동의 구체적인 활동을 전수 조사하여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확보 및 제공하는 학술연구 및 발표
- ▶ 3·1절 기념 예배자료 제공: 전국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삼일절의 기독교 정신을 되새기고 기독교 정신의 민족애를 고양시키는 예배자료 제공 (어른예배, 전세대예배, 다음세대예배, 가정예배)
- ▶ 3·1 운동 영상자료 제공: 3·1운동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보급 (CGN TV 협력)
- ▶ 방송 매체 및 언론 매체 등을 통한 기독교 3·1 운동의 소개
- ▶ 청년 사역: 상해임시정부 비전트립 및 사전 교육대회 진행
- ▶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관련 모든 자료 공유

## “성도들이 앞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하실 것”

새해 들어 기도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고, 제자양육훈련부-전도부가 새롭게 조직되는 등 교회 안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만남』은 김운성 위임목사 부임 1주년을 맞아 영락 공동체의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김운성 목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운성 목사와의 인터뷰는 지난 1월 17일 위임목사실에서 홍보출판부장 정경섭 장로와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만남』 편집장 이동훈 집사, 선임편집위원 박선이 집사가 배석했다. 인터뷰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신앙표어를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로 정하였고, 연초부터 특별금요기도회와 ‘기도대각성 운동’을 중심으로 기도와 영적 에너지 충전을 강조하신 것이 큰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올해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로 표어를 정한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게 본질이니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교회는 생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표어를 정했습니다. 둘째, 그를 위해서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목회 프로그램이나 정책 한두 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하고 기도하게 되지요.

저는 굉장히 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영락교회 성도들이 앞드려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런 기대로 가슴이 설렙니다. 기도대각성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달라지고 영락교회도 달라진 교회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달라진다는 것은 성경적 교회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를 이기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사로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규모에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순결과 성경적 측면에 있어서 사도행전적 교회 모습을 배움으로써 다른 교회에 거룩한 감동, 자극과 도전 등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 한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다더라” 이런 소식이 퍼져 나가면 틀림없이 다른 교회에도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소원 같아서 내년, 내후년에도 한 3년쯤은 동일한 표어로 강력하게 여리고 성을 도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양육훈련부와 전도부를 제직부서로 신설했고 새가족부는 전담 목사를 두어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거두시기 원하는 열매는 무엇인지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은 당연히 기도와 연결됩니다. 그것을 실천적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 전도입니다. 생명을 낳으려니까 전도에 대한 마음이 필요해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고, 또 생명을 기르려니까 제자 양육 훈련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올해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전담 목사님들이 맡아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버글버글하기 원합니다. 캠퍼스와 직장을 교구로 여겨서 심방도 하시고, 영락교회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로 완전히 살아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가족부에 전담 목사님이 계시는 것은 설레는 꿈입니다. 올 한 해 새가족 등록 성도가 한 2000~3000명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가족부는 2000명의 영혼을 돌봐야 하는데 일반 교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직 뿌리도 못 내렸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들이 영락교회 성도로 뿌리내리고 믿음 생활하게 하려면 새가족부 담당 목사님이 다른 일까지 해가면서 그분들을 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황광용 목사님께 “굉장히 중요한 교구를 목사님이 맡으시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혼을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고 영락교회 신자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도록 전담 목사님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대가 큼니다.

셋째로 전도부입니다. 전도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부가 전도하는 줄 압니다. 전도부는 전도를 직접 하기도 하겠지만 성도들 가슴 속에 전도가 생활화되도록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일 년에 몇 차례 전도할 수 있는 D데이를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자율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각 부서별로 전도 활동을 어떻게 펴나가게 될까요?

지난번에 제4여전도회에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 믿는 친구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들어라 그렇게 초대할 것이 아니고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와서 만들기 공예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 마시고, 교회 와서 그냥 어울린 것이죠. 앞으로 것처럼 부서별, 연령별 맞춤 전도를 할 겁니다. 30대 초반의 직장 초년생, 사회 초년생, 결혼 초년생, 육아 초년생, 그런 공통점을 찾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다 보면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우리랑 겹치는 부분이 있구나’, ‘여기 오니까 좋은 이야기를 듣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어느 날 교회로 초대받을 때, 믿음으로 초대받을 때 거부감 없이 오는 거고요. 전 교구나 부서, 모임에서 이런 맞춤 전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도부가 좋은 예시도 보여주고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오신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밖에서 바라본 영락의 모습과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 내부에서 보는 영락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밖에서 본 영락교회는 다들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나라 장자 교단인 우리 교단 전체 중 으뜸가는 교회이고, 한국 교회 전체를 망라해서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곳곳에서 많이 보이는 점은 밖에서 본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영락교회가 좀 조용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영적인 역동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지난 1년간 조용하지만 뚜렷한 변화의 모습을 느낀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임하시는 목사님을 주일 예배 때 강단에 세워 축복하시고 새로운 사역지를 소개해주시는 데서 따뜻함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람들 모인 곳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랑은 받침만 다릅니다. 사랑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살고 그런 거지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해 수고하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어 나가실 때 그건 정말 축하할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고단한 삶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담임 목회지에서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도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부터 5부까지 성도 앞에서 인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우들이 “그 목사님 요새 안 보이던데?” 이러면 안 돼요.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고별 설교도 하시도록 하고 싶고요,

1월6일 처음 선보인 4부 예배도 예배 전 찬송, 새로 태어난 아기 축복 등이 은혜롭고 감사하다는 말씀이 나오니 다.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신 바탕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얻을 수 있을지요.

예배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다 송영에서 시작하는데 송영은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송영과 찬양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는 거야?”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염려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뜻밖에 다 좋았다고, 새로 왔다고 하십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걸 교회가 기뻐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3040 젊은 세대가 4부에 많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몇 년 하면 그 4부는 3040 성도들이 많이 오는 예배로 특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시 반에 예배가 끝나면 일시에 3040 소그룹들이 모이고요. 지금 영락교회 최대 약점이 그 또래 집단이 조금 빈약한 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한 것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새로 등록한 분들을 보니까 1970년대 이후 출생한 분들, 또 남성이 절반이 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아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연간 몇 회는 4부 예배 메시지는 3040에 맞는 설교를 따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면 더 좋을 텐데, 저의 숙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년사역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큼니다. 사회적으로도 청년세대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가 해가 갈수록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청년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한 세대 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근시안적입니다. 청년 담당 목회자가 없어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메시지가 약해서, 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잘 알고 청년들에게 어필하는 프로그램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를 구하려는 접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또 다른 접근은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투자가 부족해” “배려가 부족해” 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면서도 또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적으로 청년이 예전처럼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지워야 합니다. 출산율이 바닥이지 않습니까? 영유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연쇄적으로 계속 줄어들 겁니다.

문제는 어린이, 학생, 청년 인구가 급속하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전도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20대 팔팔한 젊은이는 삶의 종말을 별로 생각해본 적도 없고 기본적으로 즐기는 데 심취해서 신앙에 대한 관심은 아마 관심사 중 맨 바닥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역자가 누가 오거나 재정 투자를 좀 더 한다



고 해서 청년 사역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맞겠지요.

그렇다고 청년 사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질로 승부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사역의 방향과 방법은 무엇인지요.

청년 한명 한명이 아주 양질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40~50대가 돼 교회 핵심이 됐을 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의 청년부를 보지 말고 그 청년이 장년이 됐을 때 교회나 한국 사회 안에서 하게 될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청년 사역의 열매는 올해 교역자가 몇 사람 오고 재정을 얼마 투자했는데 연말에 어떤 결과를 냈는가를 따지면 안 되고 적어도 3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30년 후 우리사회와 영락교회가 부딪히게 될 과제가 뭔지 우린 지금 모르잖아요? 그걸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30년 후에 부딪힐 상황이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의 교육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이 청년을 모아놓고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진리는 가르쳐야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더 잘합니다. 제가 한경직기념사업회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 젊은 학생, 청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청년들 집합시켜 놓고 “너희들 한경직 목사님이 누구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하고 강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경직기념사업회에서 청년들에게 과제를 주자. “너희들 한경직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에 대단한 분이었는데, 한번 스터디를 해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을 구현한다면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걸 퍼포먼스로 표현하든지 너희들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든지, 이 시대에 한경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방안을 짜봐” 그러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청년들이 주역이 돼 할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아주자, 거기까지만 장년들이 하고 나머지는 청년들에게 하라고 하면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

요즘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더 잘합니다.

어른들이 다 결정하던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

청년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사역 모델을 택하신 것이군요.

사실 우리 교회 2030 성도들 중 사회에 나가면 대단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가만히 앉아서 선배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니 답답하지요. 그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락교회 전체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방적으로 지시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른들이 다 결정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청년들을 믿어주고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장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청년들을 돕도록 좋은 교역자를 세워주고, 재정도 많이 배려하고 청년들이 신바람 나게 교회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 엘리트들을 키워나가실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들이 집사가 되고 영락교회 중직자가 될 때, 이들이 그 시대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질 것입니다.





4세 무렵 영락교회 출석 당시



7살 성경암송대회 수상 후



한경직 목사(오른쪽 두 번째)와 김운성 목사(왼쪽 두 번째) 등 기념사업회  
장학생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1982년).

주일 예배를 1~5부 모두 감당하시는데 상당한 격무 같습니다. 설교 준비와 말씀 선택은 어떻게 하시지요.

교회는 말씀이 주는 은혜나 영적 방향이 온 성도가 일치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걸 맞추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담임 목사가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일은 말씀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 사역의 본질이고 기쁨이지요. 사실 저는 당회장 되려고 영락교회에 온 것 아닙니다. 제직회장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회의하려고 온 게 아니라 목회하려고 왔고, 목회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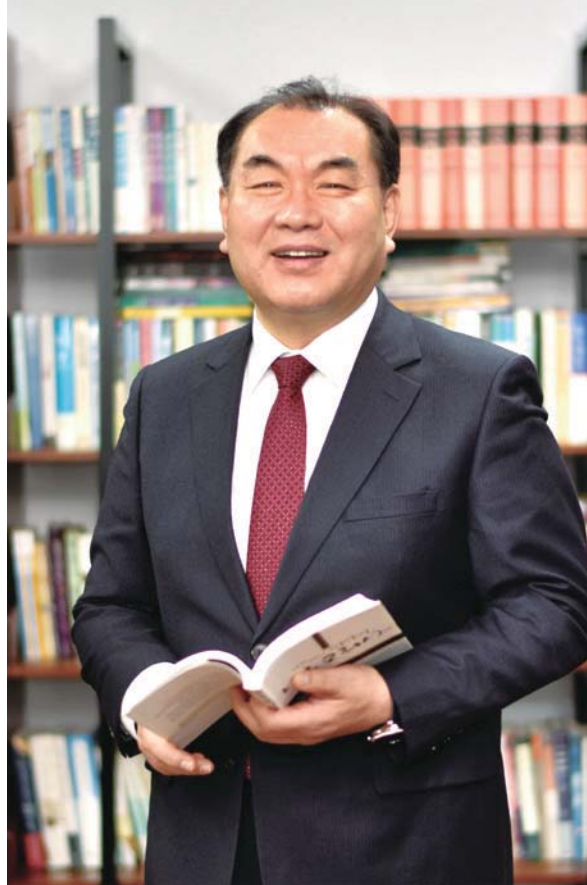
설교를 격무로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배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1부는 처음 드리는 예배라 마음이 신선하고 깨끗해서 참 은혜가 됩니다. 2, 3부는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의 열기가 고조되니까 남다른 감동이 있고 4부 예배는 요즘 새롭게 시작한 예배의 기대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싱그러움이 있고요. 5부는 오늘의 마지막 예배구나, 하고 마음이 비워지고, 시간이 쫓기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앞의 네 번 설교를 총정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설교 준비는 책상 앞에 앉아서만 하면 못 하겠죠. 평소에 일주일 내내 차 타고 다니면서, 이불 속에 누워서 강대상에 선 기분으로 맨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고, 다음엔 무슨 말씀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듭니다. 금요일에 타이핑을 시작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는 이미 80%는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지요.

“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어떤 루트를 통해  
감동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매달 첫 토요일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를 인도하시고 올해 1월에는 4번의 금요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어 목사님이 인도하시게 되었는지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역동성이 약해보이더라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던 중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좋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갑자기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경험으로 보면 좀 돌발적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회에 նըպ 앞드려 있는데 감동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제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 그제 계획에 없었던 거고 재정도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그제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개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무산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안타까운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어떤 루트를 통해 감동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사실 이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대각성 운동을 하는데 이게 6개월 전부터 준비된 게 아니고요. 두어 달도 채 안 돼 갑자기 주신 강력한 감동이었습니다. 2019년 예산에 기도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 있었죠.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제직회에서 이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걸 잘하는 교회가 있고 잘 못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 부산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제법 규

모가 있었고 한 교회는 여러 면에서 그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났더니 훨씬 못하던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있던 교회는 4분의 1로 교인이 줄었습니다. 그럼 다른 영적 분위기가 뭐냐 했을 때 딱 하나였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어떤 일로 한 30만원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교육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제법 컸던 교회는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아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슴이 뜨거운 분이었는데 돈 30만원이 없어서 못 했던 거죠. 제게 하소연을 하시기에 전도사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해보시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 교회는 돈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예정에 없던 일을 왜 하느냐고 오히려 비판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바로 허락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10년 지나니 원래 더 작았던 교회는 2.5배 성장했는데, 못 하게 했던 큰 교회는 4분의 1로 작아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이고 상당히 탄탄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했군요.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으로는 연초 특별 금요기도회가 그랬습니다. 첫 번 금요일은 몇 분이나 오시겠나, 믿음이 없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본당을 채워서 기도해봅시다.” 신년기도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날, 저도 놀라고 성도님들도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많이 올 줄 서로 몰랐다고요. 본당을 거의 다 채웠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기도회가 1월 첫 토요일새벽기도회였어요. 늦은 밤 집에 가시고 새벽에는 많이들 못 오시겠지, 했어요. 그런데 전 달보다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주께서 잘 모이라 했으니 잘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는 교회,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설교 말씀 중 ‘그녀’를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 그녀가 목사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요.

목회자 아내 역할은 좀 특별하지요. 사실 사모가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은 목사 가족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게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됩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시인이신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목사님네 아이가 대학에 척 붙으면 미안하답니다. 성도들 아이는 떨어졌는데 목사가 저 성도들 아이들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자기 아이만 위해서 기도했나?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더 죄송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가정에서 잘 못하면 성도 아이들은 다 붙는데 목사네 아이는 떨어지나...’(웃음). 제 아내는 그저 뭐 시장에서 만나는 아줌마, 길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 같지요. 교인들 중에는 굉장히 부자 내지는 세련된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어려운 분도 있는데, 목회자의 아내는 그냥 누구와도 다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인사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게 맞습니다. 목



회는 목사가 하니까 목사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는, 목회자의 아내가 제일 내조를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합하여 믿음 생활하는 데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잘 하는 편입니다. 집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 요새 뭐 별 문제없어?” “예배는 잘 드렸어?” 이렇게 말 건네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자주 뭉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 모여!” 하면 아이들이 “아빠는 뭉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룹니다. 이렇게 막내까지 다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게 부부와 가정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고 신앙의 격려가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없고, “목회자 가족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디 살든지 1년 52주 중 한 주는 아빠가 섬기던 교회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서 나란히 앉아 감사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요.

아내에게도 “우리가 여기 와서 사랑받고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훌쩍 떠나야 하고, 우리의 자취는 남게 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흔적만 남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대학 전공은 세상을 연구하는 학문(사회학)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목회자가 되셨는지요?

증조할머니가 평양신학교 세운 사무엘 마펏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 저



“

목회는 목사가 하니까 목사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는, 목회자의 아내가 제일 내조를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를 연단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새총에 맞아 눈조리개가 파열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몸이 굳어지고 돌아가는 증세로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치유하셨습니다. 병명도 모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앓으면서 서원기도를 했어요. 저를 고쳐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시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회학을 공부한 것은, 제가 사회, 역사, 인문 이쪽을 좋아했어요. 사회학과 신학은 학문적으로 괴리가 있지요. 사회학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를 인간들의 공동체로 구조적 접근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이 사회를 끌고 가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회 복지에 관심이 커요.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도 땀습니다.

**건강은 어떻게 지키시는지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주기 원하십니까?**

작년 1월 3일 갑상선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2개월 간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영락교회 청빙 위원들께서 설교 녹화 방송을 보시고 목사님이 소리가 왜 안 나오나 해서 청빙 대상에서 빠졌었다는 말씀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탁 터졌어요. 서울에 와서도 백병원에서 체크하고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연약해질 수 있으니까 몸 관리 제대로 못 하면 죄 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운동은 못하고 있어요. 날씨 좋은 날 교회 안에서 많이 걷습니다. 일이 적은 날은 또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 못 한다고 농담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첫째, 적게 먹으려 하고 있고요. 둘째로, 팔굽혀펴기, 맨손체조, 계단 걸어 올라가기, 이런 것이라도 꼭 하려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다면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영육 간에 지치지 않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영락교회 부임하던 첫날 마음으로 마지막 주일까지 하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영락교회 와서는 외부 집회 인도를 안 하거나 못 했는데, 요즘은 영락교회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목사님이 요청할 때나 한 지역에서 연합해서 개별 교회 단위가 아니라, 지역 전체, 이를 테면 군 단위로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집회에 갑니다. 교인이 10~50명 되는 교회는 자체적으로 부흥 사경회가 어렵거든요. 그런 집회에 가서 말씀하면 저도 충전되고 영락교회가 한국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분들도 영락교회가 자기네 목사님을 보내주는구나, 하고 영락교회에 고마워합니다. 거기 가면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어려운 교회, 어렵지만 열심히 하는 교회들을 보면 배움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1950~70년대에 이르는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모순과 어둠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빛을 비추었고 이러한 선지자적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가 사회 안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역할과 위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변화가 큼니다. 1950~70년대만 해도 한국 사회가 아직 다원화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앞서가는 제도와 콘텐츠를 가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앨빈 토플러가 말한 대로 사회가 발전 내지 변화되는 속도라는 게 지금은 정신 차릴 수 없이 많이 다원화되고 다분화됐습니다. 단순한 사회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마음의 비중이 50%였다면 요즘같이 복잡다기한 사회에서는 교회의 중요성이나 역할이 1~2%로 줄어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던 구제와 봉사도 정부가 흡수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할 일’입니다. 세상이 복지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죄로 인해 부패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정결한 공동체로, 정직한 성도로 우리 존재를 지키기만 해도 세상이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썸씽 엑설런트(something excellent), 즉 탁월한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썸씽 디퍼런트(something different), 즉 뭔가 다른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아, 회사를 운영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더라” 이렇게 돼야 합니다.

2019년 우리 교단의 표어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 부흥과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이 “한 사회 안에 거룩의 영역이 남아 있는 한 그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거룩의 영역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존재를 거룩하게 지키면 “아, 교회는 다르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더 잘 싸우면 한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영락교회는 깨끗한 대형 교회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성경적인 대형 교회. 대형 교회라면 벌써 부정적 이미지가 짙 깔려 있는데, “영락교회는 성도가 많아도 깨끗해” “그 교회는 달라” 그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이 더 분명하고 더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해결 못 하면 교회에 의지하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긴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영락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축복과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마당에서 만났을 때 반가운 악수 나누고, “잘 지내시죠?” 인사하는 게 작지만 아름다운 우리들의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도하러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 때, 그게 저의 의무이자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 사연이 눈물겹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든 분들도 여기 예배에 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주님의 손처럼 사용해주셔서 예배당 구석구석에 베다니홀에 선교관에 벨엘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악수하면서 제 손을 통해 치유와 위로와 행복함이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악수합니다, 그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소통의 소중한 매개체가 돼주십시오.

올 한 해 영락교회 성도들 행복하세요. 행복이 너무 인간적인 인사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기쁨(Holy Joy),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시고 기도 통해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과 함께 살아요” 하는 성도들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간 반에 걸쳐 이뤄진 인터뷰는 목사님의 뚜렷하고 명확한 설명과 간간히 웃음이 터져 나오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성도들에게 묵회 철학과 교회 사역을 알려드릴 기회를 줘 고맙다”며 교회 앞 식당에서 갈비탕 한 그릇 사주시겠다는 목사님 모습에서 ‘사람과 사랑’으로 따뜻하고 영적 에너지 뽐뽐하게 충전되는 영락교회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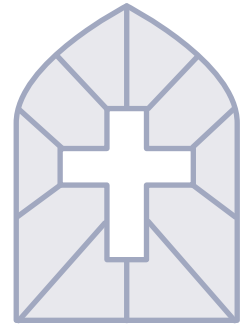


# 자라남, 그 자연스러움(Ⅱ)

영락교회 제자양육훈련부를 소개합니다

1.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5 단계 신앙성장로드맵' 소개(지난 호)

2.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소그룹 전문 사역' 소개 ✓



## 1. 소그룹의 사역적 정의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 자리에 모인 모임이다. - 로베르타 헤르테네스”

## 2. 소그룹의 다양한 모습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운영되는 소그룹의 다양한 유형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가정-구역 소그룹 (행 2:46)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사도바울이 가정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중심으로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흔히 구역모임으로 대변되는 가정모임 그룹은 지도자의 비전이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2) 제자훈련 소그룹 (마 28:18-20)

제자훈련 소그룹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헌신된 일꾼으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제자훈련은 믿음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에서 효과적입니다.



김응신 목사  
노원교구, 제자양육훈련부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 3) 언약 소그룹 (행 19:8-9)

언약 소그룹은 헌신에 기초한 모임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상호 약속된 언약에 따라 모이는 것이므로 멤버들이 도중 하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이 대표적입니다. 언약 소그룹은 자원해 시작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적극성과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4) 셀 소그룹 (출 18장)

오늘날 셀 소그룹 중심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셀 소그룹은 하나님의 교회란 개념으로 출발합니다. 셀 소그룹 교회의 장점은 셀 구성원들을 잠재적인 리더로 보기 때문에 각 사람 안에 있는 능력과 은사가 최대한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5) 전도양육 소그룹 (행 16:14-15)

전도양육 소그룹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알파코스(ALPHA course)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신자들의 교제활동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불신자를 대상으로 양육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도양육 소그룹의 특징입니다.

## 3. 소그룹이 아닌 것 -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성경적 소그룹이 아닌 것들

다음의 모임들은 소그룹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의 예입니다.

### 1) 사교모임 또는 취미모임

소그룹은 동질성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교모임은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2) 파당

소그룹은 항상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모임은 소그룹의 정신과 이념이 아닙니다.

### 3) 관리조직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살아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을 단순히 생명력 없는 조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 4) 정체된 모임

소그룹은 번식, 분화하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반드시 자신을 재생산해야 합니다. 재생산을 하지 못하는 소그룹은 소그룹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 5) 만남의 자리로 끝나는 모임

소그룹은 매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주에 한 번씩만 만나는 모임만으로 소그룹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 6) 학습방

소그룹의 리더는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나눔의 동기를 부여하며, 학습을 안내하는 목자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공부방이나 학습방의 모습은 소그룹의 모습이 아닙니다.

## 7) 철새무리

소그룹은 반드시 해당 교회 대그룹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의 참여는 거부하면서 소그룹 모임에만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목적을 위해 나오는 철새와 같은 자들은 거부해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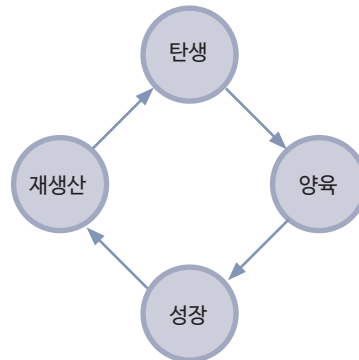
## 8) 업무그룹 또는 사역그룹

소그룹은 단순한 업무나 사역 그룹이 아닙니다. 소그룹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모임에서는 전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4. 소그룹의 재생산

소그룹의 궁극적 목적은 재생산입니다. 즉 소그룹은 현상유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멤버들이 소그룹으로 인도됨으로 인해 소그룹이 성장한 뒤,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새로운 소그룹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재생산은 하나님의 뜻(창 1:28)이고, 주님의 명령(마 28:18~19)이며,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행 20:35)이고, 가장 확실한 열매이기 때문(요 15:8)에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엡 1:23).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한 몸을 이루려면 몸의 세포에 해당하는 소그룹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탄생, 양육(훈련), 성장, 재생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체를 왕성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 5. 영락교회 현실을 고려한 ‘멘토링 소그룹’ 체제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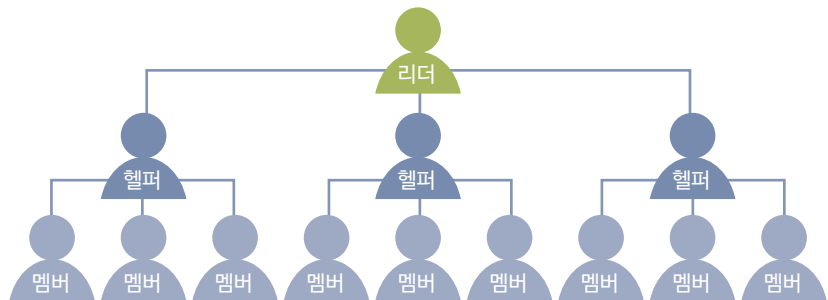
소그룹사역이 단순한 교회성장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도들을 정착, 양육, 훈련, 재교육 할 수 있는 교회의 성격과 체질을 새롭게 하는 큰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영락교회의 장년 성도들을 제대로 세우고 앞으로의 비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소그룹사역의 성격, 현실적인 역량과 가능성,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양육과 훈련의 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돼 나온 ‘멘토링 소그룹’ 체제로 전환 하고자합니다.

### 1) 핵심원리

-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한 영혼을 삼는다.
  - 내가 신앙으로 영향을 주는 세 영혼을 낳는다.
  - 신앙성장로드맵의 2단계 양육과 3단계 훈련을 거쳐 소그룹의 멤버에서 리더로 세움받도록 자라게 한다.

### 2) 기본조직도

- 이것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3) 2019년을 위한 최초의 조직 및 시행

- 50여 개의 소그룹, 50여 명의 리더로 시작
- 한 개의 소그룹은 6~8명으로 시작 (기본 조직도 참조)
- 소그룹 리더는 1년 동안 ‘2단계 양육과정’과 ‘3단계 훈련과정’을 필히 이수  
(원래 ‘선교육, 후임명’이 원칙이나 2019년 최초의 조직 시에만 예외적용)
- 2019년 한 해 동안은 그룹의 분화보다는 각 그룹들마다 하나의 완전한 소그룹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
  - 세워진 리더들이 정식 교육을 필한 리더가 아닌 양육훈련을 이수 중인 예비리더이기 때문
  -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완성되는 진행과정 및 속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
  - 영락교회 신앙성장로드맵 각 커리큘럼이 정착되도록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 그룹에도 불구하고 분화가 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며 분화시킴

“소그룹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실제적인 디자인이다.”

- 랄프 네이버 목사

다음세대,  
Z세대 키워드 이해하기

# Phono Sapiens

## #

다음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 주인공들이다. 새로운 천년(밀레니엄)을 앞두고 태어난 지금의 젊은이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 이들 세대 중 가장 젊은층을 Z세대라고 이를 붙였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과 IT 정보기술 환경에 노출된 세대이다.



이준영 성도  
홍보출판부 편집위원  
종로·성북교구



## 포노사피엔스의 시대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디지털 문명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Z세대는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핸드폰을 뜻하는 포노(Phono)와 생각을 의미하는 사피엔스(Sapiens)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세대를 가리킨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온전한 모바일 라이프를 영위하는 앱 네이티브(App native)세대이다. Z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축약된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찾아내는 비선형적인 사고패턴을 보여 준다. 책장(Text)을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는 선형적 서사구조에서 탈피해 온라인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디지털 문서 사이를 자유자재로 순식간에 이동해 읽어내는 이른바 하이퍼텍스트(Hyper text) 세대이다. 모바일 화면에는 디지털 문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비디오와 오디오, 검색도구, 쇼핑, 앱 등 수많은 요소들이 오감과 뇌를 자극한다. Z세대들의 집중 가능한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서사적 텍스트인 책 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미디어의 활용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에 본능적으로 먼저 반응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 미미미 제너레이션

Z세대는 무엇보다 ‘나’에게 집중한다. 타임(Time)지는 이러한 젊은 세대를 가리켜 ‘미미미 제너레이션(Me me me generation)’이라고 지칭했다. 진정한 ‘나다움’을 찾기 원하고 셀카를 찍어 자신을 연출하고 이를 SNS를 통해 공유한다. 그 어떤 세대보다 개성표출에 대한 욕구가 높고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고자 한다. 그런 한편, Z세대는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에도 관심

이 많다. 갑질 기업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불공정하거나 부조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사회적 신념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정의 실현에도 민감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이를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는 세대이기도 하다. 정직과 공정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의 신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Z세대를 지칭하는 대표 감성은 소확행이다. 사회에서의 거창한 출세보다 개인의 삶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키워드도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현재를 즐기라는 감성을 표현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도 이와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 직장과 일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일상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한다. 행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꼭 특별한 성취를 이루지 않더라도, 당신의 매일매일은 충분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소확행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젊은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역대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고 평가되지만 취업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장기 저성장의 늪과 계급 사다리의 붕괴로 인해 이들은 시시때때로 좌절과 무력감을 느낀다. 앞날을 계획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안개처럼 엄습하는 현실 속에서 올로와 소확행을 외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 인간관계의 O2O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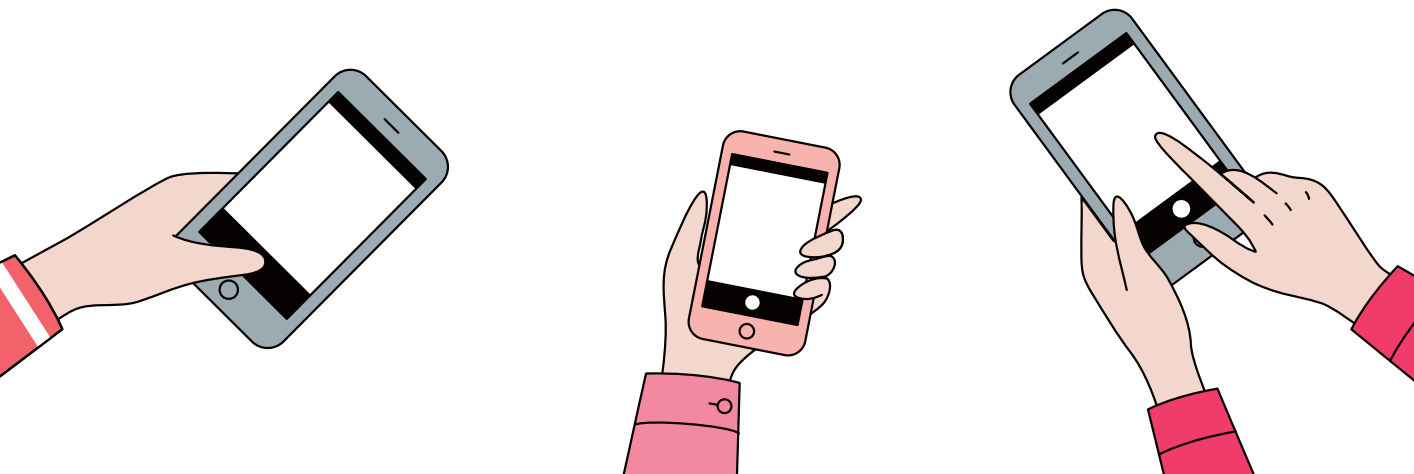
지금의 세대를 가리켜 ‘관태기 세대’라 부르기도 한다. 관계 권태기라고 해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대면접촉 자체를 꺼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심지어는 전화통화조차도 불편해한다고 해서 ‘콜 포비아(Call(전화)과 Phobia(두려움)의 합성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이다. SNS를 통한 인간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오프라인 인맥보다 온라인 인맥이 많다고 해서 인간관계의 온라인화 현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한다. 현실에서의 인맥의 관계 강도와 깊이가 티슈처럼 너무 약하다고 해서 ‘티슈인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다. 실제 Z세대의 상당수가 ‘나홀로족’ 라이프스타일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가리켜 ‘1코노미(1인 경제)’ 현상이라는 용어가 부상했다. 이제 인간관계, 가족 구조의 해체와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공동체

포노사피엔스는 전 세계적으로 26억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Z세대는 650만 명이며 이보다 어린 다음 세대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포노사피엔스인 Z세대는 미디어 소비 성향이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양한 매체 활용 능력이 높은 만큼 성경 같은 책에 집중하기 어려운 세대이다. 이들을 위한 성경읽기와 신앙교육의 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등의 수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넘쳐나는 기독교 관련 정보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줘야 한다. 미미미 제너레이션인 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공동체에서 주역이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부여한 개성과 정체성을 신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관태기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교회공동체는 진정한 쉼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신앙 선배들의 생생한 체험을 나누고 세대 간 교제를 활성화해 신앙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확행을 넘어서서 하나님 주시는 무한히 크고 확실한 행복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풍성하게 경험하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만남**



# Rejoice~!! 복음의 랩소디

중등부 겨울수련회(1월 25일~27일, 50주년기념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들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고, '비브리오 드라마'를 진행하며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구절이 생겨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고,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부라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요셉 목사님의 강연도 재미있고 은혜로웠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수련회를 함께하면서 마음 속에 와 닿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며,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수련회에서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되새기는 기회였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하는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을 크게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감사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구절을 통해 드라마를 만들고 성경을 알아가는 활동인 '비브리오 드라마'는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기도 했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성경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기도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배울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기에 좋았습니다. '찬양의 랩소디' 시간을 통해 '위섭(Worship)'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지만, 7월에 있는 여름 수련회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남**



장예준  
중등부 3학년



# who are you

## 후·아·유



이번 겨울 고등부 수련회(1월 24일~26일, 영락기도원) ‘후 아 유(who are you)’는 고등부에서 마지막으로 섬기는 수련회였기 때문에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옴에 대한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질과 사람과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은 옴의 상황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쳤던 지난날 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옴은 절망의 시간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끊임없이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미워하고 원망을 했었기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18살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희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부상으로 가장 소중했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때마저도...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다렸지만 끝내 응답해주지 않으셨고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도, 사람들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로 고등부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저에겐 아무런 은혜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학년이 끝나갈 즈음, 지금의 학생회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2학년이 되어 총무단이 돼,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와 지난 여름방학 수련회까지 두 번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



최호재  
고등부 3학년



도와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는 선생님들, 서로에게 힘이 돼 주는 선배들과 친구들 덕분에 차츰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접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만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저에게 힘을 준 영고찬(영락고등부찬양대)과 학생회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이끄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남**







## 업데이트 됐어요!!

‘은혜 안에 강하게! Up-Date!’라는 주제로 지난 1월 30일까지 4일간 영락기도원에서 대학부 겨울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변창욱 목사님이 3일간 저녁 집회에서 은혜 안에 강한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집회를 마친 후에는 대학부 벗님들과 지도위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 이름난 정주호 트레이너의 특강과 교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는 삶에 대해 실제로 체험하며, 은혜 안에 강해지는 삶을 더 가까이에서 코칭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새로운 분위기로 인해 적응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여러 상황을 통해 대학부에 조금씩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는 학생회 임원으로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대학부 한 영혼 한 영혼 일으켜 세우시며 “사랑한다 귀하다” 말씀하셨음을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뿐 아니라 벗님들에게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마칠 때 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뿐 만 아니라 주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게! Up-Date!’라는 수련회 주제 그대로, 저와 다른 대학부 벗님들 모두 한층 성숙해지고 업데이트된, 소중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영락교회 대학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지금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수련회에서의 시간과 그 시간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만남**



윤영주  
대학부 학생회 회계



##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백용욱 집사  
종로·성북교구

저는 2017년 2월 말경 베다니광장에서 영락선교세계관(YMTS) 훈련을 홍보, 등록하는 부스 앞에서 한 ‘친절하신 권사님’을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쉽게 가르치며 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커리큘럼이 도입됐으니 빨리 등록하세요”라는 달콤한 유혹(!)에 바로 그 자리에서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교학교에서 3단계, 4단계 선교 세계관 과정을 밟아 나갔는데 훈련은 선교사님, 교수님들의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조의 조원들과 함께 각자 삶의 터전에서 겪는 신앙을 나누는 가운데,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인 영락교회에서 오랫동안 외롭게 예배와 성경공부만에 치중해 열심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남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않고, 남으로부터 폐를 입고 싶지도 않은’ 생활 태도가 몸에 배었던 터라, 주일에는 주로 1부 예배만 드리고 성경 아카데미에 출석하는 정도로 봉사도 하지 않고 지내 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안일하게 지내 오다가 재작년 가을 무렵부터 왠지 저의 심령이 가난하게 돼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제 주변 환경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저도 어느덧 남아 있는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갑작스런 깨달음과 ‘그렇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떳떳한 모습으





로 만나 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웃들에게 알리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전도폭발훈련에 참가해 현재 2단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새신자반 접수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일본어, 중국어 성경반에 출석해 말씀 공부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성적인 제가 친지, 친척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서울대병원에서 환우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말에는 생애 처음으로 베트남 해외선교에 참여해,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많은 사역들을 2남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롭게 감당하고 돌아오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일들의 시작은 물론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영락 선교훈련학교에 입학한 후 쉬지 않고 2년간의 과정

을 여러 신실하신 성도들과 함께 수강하고 교제하며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일에서 출발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산책하면서 흥얼거리는 복음성가가 두 곡 있습니다. 한 곡은 분명히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 최지호 작사, 작곡의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곡인데, 그 가사와 멜로디가 저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곡은 제가 4~5세가량 됐을 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간 집 근처 언덕 위의 교회에서 젊은 자매님으로부터 배운 제 생애의 첫 복음성가인데, 요즘 제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네. 주님 따랐네.~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대네.~”

아마도 당시 불과 1~2시간 정도 배우고 나서 맛있는 과자 1봉지를 선물로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후 50여 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들어 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그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5)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저를 선택해 불러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남**

# 사순절, 받아들이기와 내려놓기



## 여는 말 : 사순절의 본질

사순절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떤 것인가? 대부분 침울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평소에 즐기던 것들을 절제하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일 뿐, 사순절의 본질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의 신비’다. 이 대담한 정의는 사순절의 기원에서 흘러나온다. 사순절의 시작은 세례와 깊이 관련된다.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은 예비 수세자들을 위한 집중교육기간이었다. 즉, 교회는 사순절 교육을 통해 예비 수세자들이 세례의 참 의미를 몸으로 알아듣고 영적 변형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속한 개척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베풀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상징한다. 세례 예식은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 생애의 핵심을 드러낸다. 십자가(죽고)와 부활(사는 것)이다. 죽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주님의 생애 안에 하나로 어우러진다.

사순절의 본질은 이 중 첫 번째 과제, 곧 십자가(죽음)를 경험하는 것에 있다. 십자가는 가장 큰 고난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설적으로 고난-죽음-십자가를 통해 삶-생명-부활을 경험한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다. 교회는 사순절을 통해 이 신비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박동진 목사  
영락수련원

## 고난의 신비

고난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이라고만 이해한다면, 그럴수록 주님의 삶은 우리에게서 멀어진다. 주님처럼 맞고 직접적으로 욕을 당할 일이 적기 때문이다. 또 고난이 순교자들의 삶에서만 일어난다거나, 어려운 선교지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중의 많은 사람은 벌써 그 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수반하는 일이다. 삶은 물론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환경, 조건을 견디고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고난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고난은 ‘원치 않는 것들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삶’ 그 자체다.

그러면 대체 이 고난은 삶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신비’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필자는 그 비법을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의 두 길로 설명하고자 한다.

## 1. 받아들임의 길

‘받아들임’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껴안고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다. 우리는 원치 않는 사람, 질병, 노화 현상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실은 외부 상황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문제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치자. 우리는 당장 화를 내버리거나 아니면, ‘화내면 안 돼’하며, 화를 짊어지고 통제하려 들 것이다. 왜냐하면, 화라는 감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화가 사라지는가? 아니다. 그것은 속에서 증폭되어 다른 엉뚱한 곳에서 폭발한다. 분노는 폭발시키거나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받아들임’ 때, 비로소 승화된다. 삶과 사역을 위한 거룩한 에너지로 변형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고난)을 제거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온전해진다.

성경은 이런 고난의 신비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구약의 대표자 모세를 생각해보자. 그의 생애 전반부는 고난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세는 왕자로 입양되어 모든 고통, 열등한 것들이 제거된, 제국의 지도자로 길러졌다. 그런데 40세가 되어 가장 ‘완벽’해진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린 곳은 궁궐이 아닌 광야였다. 모세는 고난을 제거하여 완벽한 자기를 세우려 했으나, 주님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그것(고난-광야)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모세를 세우셨다.

## 2. 내려놓음의 길

받아들임을 말했으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난과 함께 잘 지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고난의 칼끝이 결국 내 ‘자아’를 향하기 때문이다. 고난이 참된 과정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매일의 치열한 자기(내 기호, 내 생각, 내 틀) 부인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다. ‘내려놓음’은 매일의 자기 부인 속에 자아가 ‘툭’ 떨어지는 체험이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실천적 경험이다. 이것은 힘들지만 매일 묵묵히 자기 비움을 연습하는 사람 속에서 위로처럼 불현듯 일어나는 신앙의 신비다.

이 신비는 겹세마네에서 바쳐진 주님의 기도에서 잘 드러난다. 땀이 피가 되기까지 처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이 거기에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 잔을 옮기시기를’ 바라며 고난을 거부하는 ‘자기’를 온 힘을 다해 부인하셨다. 고난의 신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활짝 꽃이 핀다. 참 생명은 자기 죽음을 통해 피어난다. 진정한 채움은 비움을 통해 주어진다. 주님은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의 길-내려놓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은 이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나가는 말

사순절 가르침의 핵심은 고난의 신비에 있다. 이 신비를 깨우친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다르게 산다. 고난을 뚫고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알지 못하든, 그는 진실로 이전과 다른 사람이다. 고난과 행복이 뒤섞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앙인의 신비에 속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혹 이 글을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증이 생긴다면, 지면의 한계 때문이니 그런 분들에게는 올봄에 열리는 ‘예수님 생애 묵상수련(4/4~6일, 영락수련원)’을 추천한다. 참여한 수련자들은 침묵을 통해 고난을 맛보게 된다. 침묵 속에서 적나라한 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도 안에서 오롯이 견뎌냄으로써 ‘고난의 신비’의 원리를 깨우치게 된다. 이 신앙의 깨우침을 통해 우리의 삶은 온전함을 지향하고, 진정한 성숙을 경험한다.

필자는 사순절의 핵심사상을 잘 새기면 신앙의 길을 ‘체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수난의 신비를 깊이 경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 **만남**

# 영락교회에 새로 왔습니다!

- 2019년 신임 부목사 7인 인터뷰



**권혁일**  
목사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성도를 돕는 목회자**

강동·송파교구와 영락수련원, 영락기도대를 섬기는 권혁일 목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정연희 사모 그리고 어린 아들 시윤, 이렇게 단란한 세 식구입니다.

대학 시절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그중에서도 ‘기독교 영성학’이 사람의 변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

과 실천인 점을 발견하고 영성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의 소명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목회와 학문을 통해 섬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이자 영락교회 부임 첫날인 1월 1일 새벽기도회 시간 벨엘기도실을 울리는 ‘웅송깊은’ 찬송 소리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전통만큼이나 깊은 영성이 영락교회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도들을 만나면서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열망과,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저의 열망 그리고 우리를 영락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열망이 만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의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단순한 부름에 단순하게 순종하고자 발걸음을 옮겨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부



른 찬송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놀라우신 주님으로 인해 마음에 기쁨과 평화, 감격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김형찬 목사

####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중구·용산교구와 자원봉사부, 임마누엘찬양대, 4부예배를 섬기는 김형찬 목사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생 때까지 제주에서 자랐으며, 현재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희귀한 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그 병을 감당해야 하는 저보다, 저를 지켜보시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들의 신앙 때문이었으며, 그때 가장 큰 힘이 돼주셨던 분들이 바로 목회자 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해 주신 삶에 감사하며 저희 가정이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힘은 제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기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준비하려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목회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이고 또 감사함입니다. 온 맘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시편 119:105(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찬양은 찬송가 288장(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을 좋아합니다.



### 조두형 목사

#### 성도들과 함께 꿈꾸며 전진하겠습니다

성동·광진교구와 선교부(농어촌·문화), 제3남선교회, 제3여전도회, 베들레헴찬양대를 섬기는 조두형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강물에 합류하게 된 작은 물방울의 기분이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임 인사를 하는 주일

에 3부예배 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밟고 올라 강단에 서는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떨림과 전율이 있었습니다. 영락교회가 걸어온 역사와 앞으로 나아갈 그 장대한 흐름에 함께하게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소소한 근심에 인생을 소진하는 것은, 행성이 충돌하는데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썼습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들께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근심 없이 섬기고, 상처받지 않고 함께 꿈꾸며, 전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평소 애송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예전에는 ‘예수님을 위한 길’을 찾아 헤맸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곧 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방향이 길의 뚝이라면 담백하고 온전한 순종이 성도된 우리의 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병주 목사

###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동대문·중랑교구와 목양부, 베다니찬양대를 섬기는 전병주 목사입니다. 가족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들, 은성(恩聲, 은혜의 소리), 은설(恩說, 은혜의 말씀), 은결(恩結, 은혜로 맺음)과 함께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부모님의 서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선 신혼여행에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각자 서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서원과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살았고, 그 길에서 도망치고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로마다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저의 계획은 철저히 무산됐고, 목회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던 중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은 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섬김에는 단순히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뿐 아니라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목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과 영락교회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떨림이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이겠지요. 바울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보면 염려할 일이 참 많지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지내 온 시간을 돌아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려가 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하신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438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을 좋아합니다.

## 최재선 목사

###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청년부를 전담하는 최재선 목사입니다. 아내 박성인 사모와 첫째 딸 예나, 둘째 아들 하준이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오순도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모태신앙인으로 교회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열심히 주일성수하며 봉사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 생활을 하던 중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잊지 못할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고, 청년부 수련회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삶과 신앙에 역동적이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모든 삶을 주께 드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는 일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청년들을 향한 열정과 비전의 마음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생각하면 늘 설레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와 더불어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택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



심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첫 마음가짐으로 겸손함과 진실함, 성실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며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영락 청년부가 날마다 부흥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청년 공동체(행 9:31)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즐겨 암송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강승훈 목사

### 성도들과의 풍성한 영적 교제를 기도합니다

종로·성북교구와 상담부, 가정사역, 시온찬양대를 섬기는 강승훈 목사입니다.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반주(오르간)로 섬긴 아내 방현주 사모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째 아들 주원(하나님을 사랑하다), 둘째 딸 예원(예수님을 사랑하다)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며 목회로 섬기는 영적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신 고향 교회의 담임목사님을 대신해서 대구제일교회를 섬기셨던 고(故) 이상근 목사님께서 설교를 얼마간 대신 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원고를 보지 않고 오전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설교하시는 모습이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그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제게 교직이나 목회를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실천은 없었습니다. 군 복무 중 업무과로로 뜻하지 않게 결핵에 걸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을 때 동생이 병문안을 와서는 지루한 시간에 읽으라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주고 갔습니다. 무심코 몇 페이지를 읽었는데 책 속에 빠져 들어 이틀 만에 책을 모두 읽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저자의 주장에 완전히 설득돼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길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후 주변 상황의 변화와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목회자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회복되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저의 목회비전입니다.

우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의 전통과 명성이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에서 온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목회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셨다는 생각에 요즘 많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와 삶의 자리에서 공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의 간증과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연약한 저와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며 교회에서의 만남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긴 인생에 비하면 짧은 만남이지만 영락교회에서 섬기는 동안 교구와 부서 사역을 통해 성도님들과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애송하는 말씀은 시편 18편 29절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찬송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애창합니다.

## 노대웅 목사

###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영락 고등부를 소망합니다

고등부를 전담하는 노대웅 목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천지현 사모, 장남 하준, 차남 하담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중·고교 시절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목회를 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의 대를 전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영락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따뜻하고 열정이 있는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운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 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영락 고등부가 되기를 꿈꿉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신 요한일서 4장 7~8절을 즐겨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 주님의 거룩한 뜻에 나팔로 사용되어지길

## 영락 오토하프 찬양단을 창단케 하신 하나님

교회사역을 은퇴하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국 크로마하프(정확한 명칭은 오토하프(Autoharp)) 연주협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늦게 배운 하프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의 여유를 누리며 즐겁게 생활하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게 강권적으로 강사 자격을 취득케 하시더니 오토하프 찬양단을 개설하라는 강한 사명감으로 저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퇴했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성경공부반 목사님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85세 때였습니다. 우리가 늙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더 기도하면 동역자를 주십니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산지(하프 아카데미 개설, 장소 허락, 교육용 악기, 동역자 등)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악기를 준비하면 성도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교육용 악기는 교회에서 준비한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 흠 없는 것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2017년 11월 말 우리 교회 문화선교 아카데미반으로 허락받았습니다. 적절한 수업 장소(중보기도실)와 수강생 다섯 분을 보내주셔서 작년 4월 6일 창단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중고악기를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여러 달 전부터 공장을 방문하고 협의했습니다. 창단예배를 앞두고 중고 악기를 구매했는데 문제가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구약성경을 통해 ‘하나님께는 첫 열매를 드려야 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알고, 이를 신앙생활의 신조로 삼아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고 악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 활동반이니 괜



임관희 은퇴권사  
안양·수원교구



참아'라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적은 수강생을 보내주시고 완전 새 악기를 구매하게 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씀처럼 새 악기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작년 2월 단원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0명이었습니다. 실망과 좌절감이 컸습니다. 지원했던 분들도 취소하고 떠났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3월 위임목사님이 '하늘에서 큰 자' 시리즈 3번째 '구레네 시몬'을 제목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민을 대속하는 십자가이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마음에 부담되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주님이 제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창단예배 하루 전 새벽, 큐티 시간에 이사야 41장 9~10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골이 고향인 저는 9절 말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 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를

읽으며 어릴 때부터의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떠올랐습니다.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한 참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영락 오토하프 찬양단'은 지난해 4월 6일 창단 감사예배를 드렸고, 연말 협회 송년 축제에서 복음송가와 가곡을 연주했습니다. 또 카페(카페명 : 영락 오토하프 찬양단)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에 3기 수강생을 모집해 3월 첫 주에 3기 개강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 초·중·고급과정 훈련...2월 수강생 모집

오토하프는 음색이 차분해 성가곡 연주에 잘 어울리며, 악기가 크지 않아 휴대가 가능해 어느 곳에서나 연주하기에 매우 적합한 악기입니다. 초급과정(기초과정/화음연주), 중급과정(멜로디 연주법/리듬연주법/합주/합창), 고급과정(독주/독창연주/모던재즈 등)을 통해 훈련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가는 믿음의 오토하프 찬양단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에 나팔로 사용되어지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찬양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만남**

## 온전한 순종으로 담대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지선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3구역장

오래전 읽었던 『오늘, 제자로 살기(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라는 글귀가 떠오릅니다. 환호하는 팬으로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섬기는 제자의 길을 가라는 울림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하고 준비가 덜 된 제가 구역장 일을 맡게 됐다는 것이 저 스스로도 얼떨떨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하지만 사명은 제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온전한 순종으로 담대하게 감당하려 합니다.

1999년 기도하며 교회를 찾다 친구의 소개로 영락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썬데이 신자로 다니다 2002년 8월 한창 월드컵축구를 열기가 뜨거울 때 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동생이 이혼과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린 조카들을 뜻하지 않게 맡아야만 했습니다.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웠던 시간은 저를 단련시킨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2017년 소그룹 제자 훈련을 통해 아웃사이드가 아닌 인사이더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도훈련이라는 영적훈련을 통해 성령 충만한 믿음생활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작년 첫 구역장이 됐을 때 구역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중

압감이 컸습니다. 기도조차도 서투른 제가 ‘신임 구역장 교육’ 순서대로 진행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관록 있으신 권사님들은 저의 부족한 부분을 그때마다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좌충우돌로 걱정입니다. 무거운 옷을 입은 듯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에는 20세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은퇴장로님, 은퇴집사님, 은퇴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등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구역 예배는 은퇴권사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성도들은 직장 아이들 양육으로 참석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예배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은퇴장로님이 이사 오셔서 구역예배를 사모하심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은퇴권사님 3분이 같은 연세에 가까운 곳에 사시고 평생 대학과 찬양대에서도 헌신하십니다. 저에게는 귀중하고 든든한 리더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해피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가장 연로하신 은퇴권사님은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몸이 불편하신데도 30분을 걸어 새벽 예배에 나가십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아프더라도 지팡이 짚고 참석하십니다. 이런 든든한 믿음의 식구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에는 모이기를 힘써 주님 앞에 합심해 기도드리기를 사모하는 신앙공동체로서 거룩한 희열을 누렸으면 합니다. **만남**



## 산티아고 순례길에 동행하신 하나님



사진제공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자협회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스페인어로 산티아고)의 유해가 있는 스페인 서북부의 산티아고 대성당을 향해 이어져 있는 길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멀고 먼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야고보의 발자취를 따라 마지막 그의 모습을 찾아가는 순례길이다. 프랑스 남부 생장피드포르(St. Jean Pied de Port)에서 시작해서 피레네산맥을 넘어 산티아고에 이르는 800여km는 산티아고로 가는 네 길 중, 프랑스 길로 불린다.



고윤숙 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오래전부터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마음에 품고 떠나기까지 2년 정도 준비기간을 가졌다.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자협회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기본정보를 얻고, 북한산 기슭에서 전용스틱을 사용해 걷는 ‘노르딕 워킹’ 훈련을 받았다. 일본 초카이산 트레킹코스과 제주 올레길을 노르딕 워킹법을 활용해 걸으면서 워밍업을 했다. 며느리의 도움을 얻어, 그동안 읽은 책들을 참조하며 순례길 구간별 일정에 따른 숙소예약을 하고, 남편과 함께 40일간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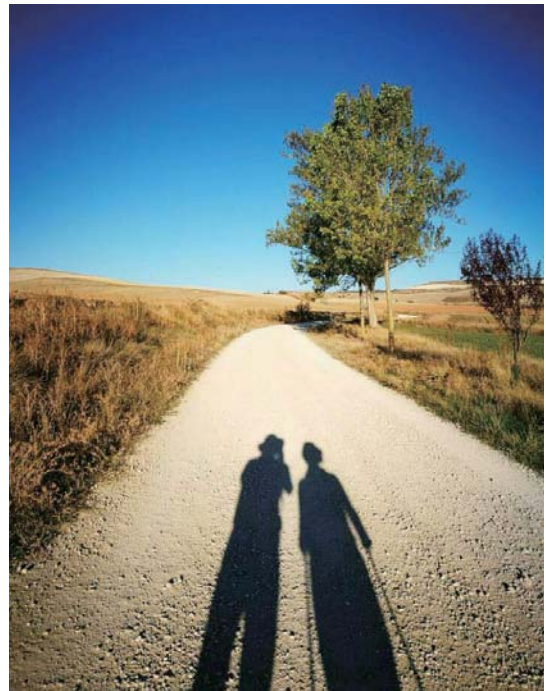
파리 샤를드골공항에 도착해서 유심카드를 교환하고 몽 파르나스역에서 생장행 기차표를 발권했다. 다음 날, TGV를 타고 바욘(Bayonne)에 갔는데 생장으로 가는 기차가 파업으로 운행정지란다. 대체 버스를 기다리는 사이에, 바욘성당에서 순례자 여권(Credential del Peregrino)<sup>1</sup> 발급과 함께 순례자의 상징물인 조가비를 받아서 배낭에 매달았다. 생장에서 순례길의 첫날 밤을 지낸 후,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진 오리손(Orisson)고개를 지나고, 피레네산맥의 론세바예스(Roncesvalles)를 거쳐, 고도 1,450m의 레포데 안부(Col de Lepoeder)를 넘는 길은 짙은 안개 속에 비바람이 치고 진흙탕으로 오르막 내리막이 험난했다. 생장을 출발한 지 한 달 만에 산티아고에 도착해서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타고 애초 계획에는 없었던 무시아(Muxia)를 거쳐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유럽 대륙의 끝 지점, 피에스테라(Fiesterra)에 다다랐다.

순례기간 중에 몇 지점은 버스를 이용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두 발로 걸어야만 순례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뿐이라고 한다. 맨 처음 순례자는 말을 타고 갔고, 지금도 말이나 자전거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 아무튼 나는 무릎 보호대, 발목 보호대를 하고 내 페이스에 맞춰서, 산티아고를 지나 피에스테라까지 927km의 기나긴 길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발에 물집 하나 없이 행복한 순례길을 걸었다.

순례기간 중에 남편의 생일을 맞았다. 함께 숙식한 사람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시간도 가졌다. ‘유 아 마이 선샤인(You are my sunshine)’ 축가를 부르자 앙코르가 이어졌다. 식탁에 놓인 빵 바구니를 끼고 ‘도라티타령’을 불렀더니 모두들 환호하며 ‘아리랑’에 이어 ‘애국가’를 신청한

다. 그 후론, 순례자들 간에 어떻게 소문이 돌았는지 길을 걷다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너희가 코리언 싱어즈 커플이구나! 오늘 저녁엔 우리랑 같은 숙소에 묵자”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곤 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참 다양했다. 산티아고 근교에 살면서 기차를 타고 생장에 갔다가 다시 산티아고로 걸기를 여덟 번째 하고 있다는 통통한 털보아저씨는 그 이유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짹 벌리며 “It’s free!”하고 외친다. 팜플로나(Pamplona)에서 푸엔테 라 레이나(Puente la Reina)로 넘어가는 페르돈봉(Alto de Perd n, 고도 790m)에서는 한 무더기의 시끄러운 중학생들을 만나 함께 수다를 떨면서 내려왔다. 이들은 중학교 입학 후 한 달



남편 윤상우 은퇴안수집사와 함께 매일아침 산티아고를 향해 걷다.

1 구간별로 숙소나 바, 성당 등에서 찍어주는 각양각색의 스탬프, 예약할 수 없는 공립 알베르게를 사용할 때 필수임. 산티아고에서 확인 후 필그림 완주증명서를 발급한다.

동안 야외수업을 통해 새로 만난 친구들과 서로 관계형성을 한다고 한다. 암 투병 중에 걷고 있다는 강마른 독일 젊은이, 국기를 배낭에 꽂고 씩씩하게 걷는 이탈리아 아가씨, 매년 휴가를 내어 구간을 이어 걷고 있다는 벨기에 부부, 은퇴 후 친구와 함께 자전거 트레킹을 하는 브라질 노교수, 순례길을 걸으면서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는 호주 여자···, 한국인들도 많았다. 퇴직 후 아들에게 등 떠밀려 왔으며 연신 투덜대는 세무공무원, 군복무가 끝났거나 휴학 중 복학하기 전에 쓴 돈으로 유럽 여행 왔다는 청년들, 아스토르가(Astorga) 수녀원 숙소에서 맛있는 닭백숙 요리를 해준 전남 여수아저씨까지··· 자고 깨면 걷는 길 위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서로 “올라!”, “부엔 까미노!”로 축복하며, 매 순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들이 없는 들길에서 땀을 흘릴 때면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작은 구름조각들이 잠깐씩 태양을 가려주어 시원하게 걸을 수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포도, 무화과, 석류, 사과 같은 과일들과 호두, 아몬드, 밤 같은 야생견과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듯 갑자기 길 위에 나타나곤 했다.

몸이 힘든 긴 여정 속에서 어찌 늘 마음이 편안하고 좋기만 하랴! 남편과 함께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해 걷는 한 달여 순례길의 하루하루는 지난 삼십여 년을 함께한 결혼생활 여정과도 같았다. 때로는 즐겁고 기쁘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런대로 잘 견뎌내며 걸었다.

산티아고에 도착해 두 시간 남짓 줄서서 기다린 후에야 성당 안에 들어섰다. 좁다란 계단을 오르니 사람들이 작은 기도실에 안치된 커다란 야고보상의 여개를 끌어안고 기도를 드린다. 내 차례가 되어 손을 얹자 견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진다.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회개기도가 절로 흘러나왔다. 나는 전문상담사로서, 어떤 내담자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공감



피레네 산맥 기슭 론세바에스 지점

하며,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생명 살림과 회복사역에 쓰임받기를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깝고 소중한 남편은,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나님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일 년여가 지났다. 때때로 그때 드렸던 간절한 회개기도를 무효화시키며 살고 있는 부끄러운 나는, 여전히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로 “괜찮아. 네 마음을 잘 안다”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낀다.

우리 부부가 삶의 여정을 함께 걸은 지 사십년이 되고, 내가 칠순을 맞게 되는 내년 가을에, 우리는 산티아고를 향한 북쪽 해안 길을 걸으려 한다. 조금은 더 성숙하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어느 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6시 50분경,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복문 경비실에 와서 벨엘 중보기도실을 열어달라고 해 열어드렸다. 2시간 동안 중보기도를 한 후 또 오셨다.

“집사님, 중보기도실이 안 잠겨요. 집사님이 잠가주세요.”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락교회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중보기도실로 가면서 생각했다.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것이구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언어는 참으로 많이 바뀌었다. 경비원 생활하기 전까지는 전문 강사로서 항상 상황에 대한 사실분석과 묘사, 문제 이유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한 말에 토를 안 달고 그냥 받아들인다. 이전이었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아! 문이 안 잠기는군요.”

“똑딱이 문이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면 잠깁니다. 제가 잠그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실로 가서 안쪽 손잡이 가운데를 살짝 누르니 그냥 잠겼다.

중보기도실을 나오면서 생각했다.

“여자 집사님은 문을 잠그지 못했어. 그러니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지. 나는 그 요청을 들어주는 반응이 필요했던 거야.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참으로 잘했네, 잘했고 말구.”

사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영락교회 경비원 면접 보고 입사했을 때 경비실장님이 신신당부하면서 강조했던 것이다.

“나는 토 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토 달지 마세요.”



이승각  
교회 복문 경비원  
(명광교회 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반응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이유와 배경, 근거가 있는데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그 배경과 이유를 알고 나면 결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경비실장님이 강조해서 나에게 다시 말했다.

“토 달지 마세요!”

경비실장님과 면담 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여러 번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것이 떠올랐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생긴 언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영적인 메시지의 울림이 컸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언제나 나에게 말씀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믿음의 확신과 현실에서 느끼는 말씀에 대한 의심 사이에서 언제나 방황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라는 말씀 선포가 있는데 현실에서 나는 오른발 끝이 아파서 고통을 느낄 때 믿음의 의심이 생겼다.

말씀의 확신과 믿음의 의심 사이에서 교차하는 많은 생각 속에서 믿음의 도전으로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불법으로 들어온 통풍의 고통 질

병은 떠나가라! 통풍은 깨끗해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통풍은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 여름, 나에게 일어난 치유사건이다. 오른발에 통증이 있어서 잘 걸지 못해서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통풍은 약이 없어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삼가주세요. 통풍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이 자주 아플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통증이 있던 발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오른쪽 발끝 위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은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다.

“예, 생명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생명의 말씀대로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통풍은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통증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도전이 된다. 중보기도실 문을 잠가 달라고 요청한 여자 집사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란 내 반응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기쁜 얼굴로 떠났다. **만남**



## 영혼의 온전함 위에 육체적 강건이



통일 사역자 훈련 때부터 알게 된 자유인 청년과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명절이 되면 집으로 초청하곤 하는데, 올해 신정에는 덕담으로 두 군데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6),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

민수기 말씀의 평강은 바로 샬롬이다. 그런데 요한3서의 말씀은 샬롬의 축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평강의 축복을 전하며 영혼의 온전함과 사회적 관계(사업)의 번영과 육체적 강건함을 기원하고 있다. 온전함을 의미하는 샬롬은 온전한 건강과도 잘 연결된다.

영적 성숙과 심리적·신체적 건강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많다. 성숙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우울감이 덜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암 환자에서 기독교 신앙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더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 약물 중독성 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치료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 교회가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이 혈압 수치를 낮추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었다.

영적 성숙이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온전한 건강을 위하여 영적 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크리스천 내과 의사였던 폴 투르니에는 저서 ‘성서와 의학’에서 인격의학은 환자의 문제를 신체적, 심리적, 영적 차원에서 통합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목



박일환 장로  
성남·분당교구  
의료선교부장

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발견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해 감으로써 의사의 개인적 문제들, 환자가 의사에게 가져온 문제들의 해답을 찾는 것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의해 형성된 경건한 습관의 유익은 분명하다. 절제, 금식과 같은 습관들이 보다 나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첫째로, 건강 위험인자들을 교정하여 좋은 건강 습관들을 갖는 것이다. 교정 가능한 건강 위험인자들은 비만, 건강치 못한 식사 습관, 운동 부족, 건강치 못한 수면 습관, 과도한 음주, 흡연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약물 남용 등이다. 둘째로 질병이 증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다. 최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검사들이 많이 발전해 적은 비용으로 건강 검진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권고되고 있는 연령별, 성별 맞춤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체를 관리하는 청지기의 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일 것이다.

주기적 건강 검진을 받다가 어떤 질병이 찾아옴을 발견할 수도 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삶의 마지막에 이를 수도 있다. 삶의 마지막에 이를지라도 우리 몸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신체적 신호를 분명히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고후 5:1)을 벗을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다.

유명한 크리스천 의사 데니스 버킷의 삶을 기억한다. 그는 아일랜드 태생으로 어려서 사고로 오른쪽 눈을 잃었지만 군대에 속한 외과 의사로서 아프리카에서 근무하는 중에 소아에서 특이하게 발생하는 림프종을 발견했고,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공헌했다. 이 병의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라 버킷 림프종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더 유명해졌다. 데니스 버킷은 아프리카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의 식이 습관과 질병 양태를 비교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질병 예방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섬유질 맨(fiber man)으로 유명해졌다.

그런데 별세하기 2년 전에 쓴 책에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로 기억하는 것이 그가 이른 과학적 업적과 명성이 아니라 의과대학을 다닐 때부터 배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했던 매일 아침 성경 몇 구절을 읽고 소가 반복적으로 되새김하듯이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성경 묵상 습관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 그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삶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을 잘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해주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변화시키도록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며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내면의 불안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확신을 갖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청지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남**

2019년 영락화랑의 주제는 '예수 12제자'입니다.

명화와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영적, 인간적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참된 제자도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 안드레, 많은 사람을 예수께 인도한 사람



안드레는 지난달에 소개한 베드로의 형제로서 베드로처럼 어부였다. 복음서에 서술된 그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서술은 요한복음(1:35-44; 6:8-9; 12:20-23)에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인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된다.

첫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은 스승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양”(요 1:36)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그를 예수께로 안내한 것이다. 그는 열두 제자 중 세례 요한의 소개로 제자가 된 유일한 사람이다.

둘째, 안드레는 예수를 만난 뒤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요 1:41)고 말한다. 가장 먼저 자기 형제에게 예수를 메시아(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제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중에서도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난 다음 베드로를 예수께 소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그는 (특히 동방정교에서) 열두 제자 중 “최초로 부름 받은 이”(prtokl tos)로 불린다.

셋째, 다음 날에는 그와 “한 동네”에 사는 빌립도 예수를 따르게 된다(요 1:43-44). 복음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전에 이미 안드레가 그에게 예수를 전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안드레와 빌립은 자주 함께 등장한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오천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야 할 상황에서 빌립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안드레가 딱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께 소개했고(요 6:5-9),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은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부탁하여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 때 빌립은 그 사실을 안드레에게 알렸다. 안드레는 다시 빌립과 함께 예수께 그 사실을 알리드렸다(요 12:21-22).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열한 제자의 이름이 나열될 때에도 안드레는 빌립과 나란히 놓여있다(행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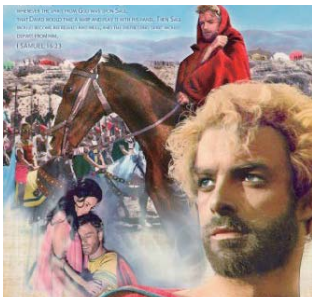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에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스승의 안내로 마침내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안내했다. 그를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하)는 말씀이 생각난다. **만남**

그림 선정·집필 박정관 목사(문화연구원 소금향 원장)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 3월의 상영작



## 사울과 다윗 (Saul And David, 1964)

감독 : 마르셀로 발디 주연 : 노만 울란드, 기아니 가르코  
상영시간 : 1시간 48분

왕이 없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달라고 사무엘에게 졸라댔다. 사무엘은 여호와 의 뜻에 따라 사울을 초대 왕으로 정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여러 나라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어 용맹을 떨쳐 권세가 강해지자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에게 이스라엘군 지휘권을 줬으나 다윗의 덕망이 백성들 사이에 점점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한다.

3일



10일

## 산 (The Mountain, 1956)

감독 : 에드워드 드미트릭  
주연 : 스펜서 트레이시, 로버트 와그너, 클레어 트레버, 윌리엄 드마레스트  
상영시간 : 1시간 45분 등급 : 12세관람가

눈과 빙하로 이루어진 산촌에 나이 차가 많은 형제가 산다. 어머니가 죽고 형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동생을 아들같이 기르며 살아오지만 동생은 그런 형을 구타하기까지 하는데...



## 호빗: 다섯 군대 전투

(The Hobbit: The Battle of the Five Armies, 2014)

감독 : 피터 잭슨 주연 : 마틴 프리먼, 이안 맥켈런, 리처드 아미티지, 케이트 블란쳇 외  
상영시간 : 2시간 24분 등급 : 12세관람가

난쟁이족은 원래 자신들의 터전이던 에레보르에 있는 엄청난 보물을 되찾지만 무시무시한 용 스마우그가 호수마을의 무기력한 주민들을 공격하게 된다. 산 아래 왕 참나무 방패 소린은 탐욕으로 인해 우정과 명예를 저버린 채 왕의 보물 아르켄스톤을 찾는다. 소린이 이성을 되찾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한 빌보는 훨씬 험난한 일이 펼쳐질 줄 모른 채 위험한 결정을 내린다.

(상)17일

(하)24일



31일

## 변호인 (The Attorney, 2013)

감독 : 양우석 주연 : 송강호, 김영애, 오달수, 임시완  
상영시간 : 2시간 7분 등급 : 15세관람가

1980년대 초 부산. 뺨도 돈도 없는 가방끈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자문까지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며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대기업 스카우트로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앞에 둔 송변은 우연히 7년 전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국밥집 아줌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송변은 모두 회피하는 사건을 변호하기로 결심하는데...



##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직이 되기를 결단한 ‘2019 제직부흥회’



제직부흥회가 지난 1월 27일과 2월 10일 주일 찬양예배 시에 본당에서 열렸다. 매년 제직수련회로 열리다가 올해부터는 제직부흥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18개 교구의 제직들이 각 교구별 지정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제직부흥회에서 1차는 부산 백양로 교회 김태영 목사, 2차는 김운성 위임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1차 부흥회에서 김태영 목사는 ‘하나님을 감동 시킵시다’(삼하 7: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대지기로 살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차 제직부흥회에 강사로 나선 김운성 위임목사는 “슬픔의 세월에서 기쁨의 세월로”(출 1:8~14)란 설교를 통해 “세상의 가치관에 안주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직이 되길 바란다”고 제직들을 권면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2019년 당회원 영성수련회 설악산 수양관에서



당회원 영성수련회가 지난 1월 28일(월)과 29(화) 양일간 70여 명의 당회원(목사, 시무장로)이 참석하여 설악수양관에서 개최됐다.

김운성 위임목사의 말씀으로 개회예배를 마친 후, 공동체(교제)시간으로 3·1절 100주년 기념 해를 맞아 삼일운동의 기독교정신을 되새기는 주요 사업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 목사님 기도처 방문, 저녁 시간 영화묵상을 통해 묵상한 내용을 조별

토의 순으로 첫날 일정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 예배와 성찬, 고전강독의 순서로 끝나는 <기독교강요>의 고전 속의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의 사상과 정신을 공부하는 수련의 시간을 가지며 영성 수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헌신을 다짐하는 ‘2019 여전도회 헌신예배’

지난 1월 20일(주일) 찬양예배는 2019년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러졌다.

이날 본당 1층에는 한복으로 곱게 차려 입은 제 1,2,3,4여전도회 증경회장단, 임원 및 실행위원들이 참여하여 헌신을 다짐했다. 서승신 권사(제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김희순 권사(제2여전도회장)의 기도, 백현주 집사(제4여전도회장)의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초청 강사인 손달익 목사(서문교회)는 ‘연합하여 한 길로 가는 공동체’(행13:1~3)의 제목으로 “연합, 일치, 조화로 큰 사역을 이뤄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처럼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전도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교사역에 쓰일 봉헌의 시간에는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봉헌송과 현성경 권사(제3여전도회장)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이어 지난해 각 1,2,3,4 여전도회 선교 사역 활동을 담은 영상 관람 후,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다같이 여전도회가를 부른 후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신임권사 76명, 권사회 헌신예배

2019년 권사회 헌신예배가 지난 1월 13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드러졌다. 홍용희 권사(권사회 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헌신예배는 오정선 권사(권사회 부회장)의 기도, 성경봉독(마 3:13~19),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박규성 목사가 “빌고 구하고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에베소교회를 위해 구하고 빌고 원했던 사도바울의 고백을 들어 주신 것처럼 “주를 위해 헌신할 때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준다”며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받아 더 큰 은혜 누리는 권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김운성 위임목사가 신임권사 76명에게 권사로 택함받음을 선포했다. 신임권사들은 선교 위해 힘쓰며 맡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길 약속했다.

홍용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권사회 53주년 되는 해에 76명의 신임권사 임직을 축하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며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되게 섬겨 나가는 권사회가 되자.”고 전했다. 이에 신임권사 대표 정경희 권사는 “부름받은 자로서 교회를 화목하게, 복음 전하는데 충성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고 답사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의료선교부, 필리핀에서 의료선교봉사활동 펼쳐



의료선교부(부장 박일환 장로)는 지난 2월 2일부터 5일까지 김춘자 선교사 사역지인 필리핀 카비테이노센시오(월드미션신학교)에서 '우리를 주님의 몸 삼으소서(엡 1:23)'라는 표어를 가지고 의료선교봉사 사역을 펼쳤다. 단장 정광윤 안수집사를 비롯 총 33명이 참가한 이번 봉사단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본 교회 대학생과 청년 9명도 함께 참여하

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봉사단은 이번에 펼친 의료사역을 통해 1600여명에게 진료 활동을 펼쳤고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풍선, 팝콘, 티셔츠, 사진촬영 등의 아동사역 3600건을 펼치기도 했다.

제공 의료선교부

## 고(故) 김상현 목사 순교자 추서 감사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지난해 9월 순교자로 추서한 김상현 목사(1882~1948) 순교자 추서 감사예배가 지난 1월 31일(목) 11시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다. 김상현 목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만세 운동을 주도하여 2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1945년 광복 후에도 평안북도 용천군 내중면 대성교회에서 시무하다 공산정권의 탄압을 받고 고문을 당했다. 1948년 고향인 평북 철산군 회당교회에서 시무를 계속하던 중 고문 후유증으로 소천했다. 장로회 총회 순교순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23일 김상현 목사에 대한 총회 순교자 추서 청원을 받아 9월13일 만장일치로 추서를 결정, 공포했다.



감사예배는 순교 추서 심사위원장 김완식 목사의 인도로 김운성 위임목사가 기도하고,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다 희생하신 목사님의 순교적 신앙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며 본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추서 예식에서 김 목사의 외손녀인 우리 교회 김순미 장로 등 유가족에게 순교헌정서를 수여했다. 김 장로는 “가문에 순교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 생명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들을 초대합니다

생명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로 꽃 피우게 될 제14기 영락어머니학교가 3월 16일 토요일부터 5주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락어머니학교는 어머니들이 믿음 있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생명의 존귀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자녀양육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어머니, 혼자라고 여겨서 우울해진 어머니, 자신에게 시간


을 선물하여 초심을 되찾고 싶으신 어머니, 선배 어머니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으신 어머니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서로 나눔을 통하여 은혜 충만, 나눔 충만, 감사 충만한 자리에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남**

제공 정선복 권사(상담부 영락어머니학교팀장)

제14기 영락어머니학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상담부

### 생명을 낳아 기르는

## 어머니들의 이야기

믿음있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영락어머니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일 시** 2019년 3월 16일~4월 13일 오후2시~6시(매주 토요일/5주간)  
• 제3주 문화나들이 오전10시~오후3시

**장 소** 영락교회 봉사관 405호

**인 원** 30명(선착순 모집/타교인 가능)

**회 비** 5만원(고재, 영화관람, 간식 등 제공)  
• 우리은행 1005-201-601374 (예금주 : 영락교회 상담부)

**문 의** 상담부 봉사관 303호 ☎ 2280-0171 팀장 ☎ 010-4933-3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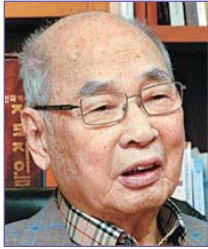
**강의내용**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제5주
3/16	3/23	3/30	4/6	4/13
어머니로서의 영향력	어머니의 사명	문화나들이	여성상의 회복	어머니의 영성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박재훈 목사 창작 오페라 ‘함성, 1919’ 3월1~2일 KBS홀서 공연

“3·1운동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을 기념해 박재훈 목사(97·사진)의 창작 오페라 ‘함성, 1919’가 3월 1일(금)부터 이틀간 KBS홀 무대에 오른다.

‘함성, 1919’는 3·1운동의 의미와 당시 기독교인들의 신앙 및 구국정신을 담은 2막5장의 합창 오페라다. 박 목사는 1950~60년대 우리 교회 시온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하며 영락교회 찬양대를 한국 교회음악 최고 수준에 오르게 육성했다. 1967~73년 한양대 음대 교수를 지낸 그는 찬송가(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작곡했으며, 500여 편에 달하는 찬송가와 성가곡, ‘산골짜기의 다람쥐’ 등 다수의 동요를 작곡했다. 이 공로로 2011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1973년 캐나다에 이민,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했다.

취재 김경옥 기자

## 영락역사자료

### 2019년 1월 기증 현황 (1건)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주상호 은퇴 안수집사 (종로·성북교구)	1/2	- 2007년 12월 2일 장로장립 집사안수식 예배 순서지 - 문서 1건

### 사료를 기다립니다

1. 2000년대 이후 장로장립, 집사안수식 순서지
2.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상 사료(외부인사 서신 포함)  
- 외부기관 수여 감사패
3. 교회를 상징하는 주요 기념품 - 교회 깃발 및 로고, 교회의 머릿돌
4. 교회 발행 도서/간행물 - 제직부서의 정기 간행물, 교회학교 및 교회 교육자료  
음악부 찬양대 간행물, 설교문 및 설교테이프
5. 교회의 창립 관련 사료
6. 영락교회 규정집 및 행정장정 사료

문의 : 역사자료실 ☎ 02)2280-0357

##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새가족 환영

등록일(1월 6일~2월 3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등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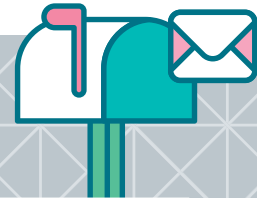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월 6일	한갑수	04	073
	강성자	04	073
	윤충섭	09	019
	김 구	10	025
	강헌준	04	031
	이충신	08	000
	김현종	07	000
1월 13일	김광자	04	056
	양귀애	13	013
	이종례	16	003
	김홍선	18	042
	정인숙	11	061
	한재구	05	062
	박상호	15	004
	김윤아	09	033
	김근정	12	040
	윤여진	05	012
	김현경	15	001
	김예슬	04	033
	김도아	16	047
	김민	13	007
1월 20일	이명재	11	000
	조성관	08	000
	이명숙	04	033
	이성이	02	072
	윤주열	03	015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월 20일	변미진	10	059
	안보상	10	033
	박정현	06	070
	이호권	09	038
	이미영	13	024
	조성현	13	037
	전찬영	04	065
	오주영	16	021
1월 23일	박도율	04	098
1월 27일	김현자	14	000
	한순자	11	049
	김주경	06	055
	민병원	14	000
	최수연	14	000
	이령주	06	042
	박충훈	14	000
	강은경	10	000
	최인혁	12	000
	유혜진	02	005
	김리아	16	050
	이하율	17	055
	지현승	07	004
	김영한	04	098
2월 3일	장채아	17	054
	김나은	14	003
	김준우	14	026

## 목회력

# 3月

3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세례·입교식
6일(수)	재의 수요일
8일(금)	연합 및 금요권찰공부 상반기 개강
10일(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제직회
17일(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2일(금)	심방준비회
24일(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회봉사주일
31일(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영락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



## 편집장 레터

요즈음 우리 영락교회는 그야말로 기도의 잔치 중입니다. 이곳저곳 울리는 기도 소리는 한날의 피로를 영혼의 편안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3월 〈만남〉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변화의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영락교회 부임 1주년을 맞는 김운성 목사님과의 인터뷰는 무엇보다 성도님들에게 기도대각성 운동의 참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영성(靈性)의 생성은 자유와 진리의 생성입니다. 영성이 생성된 인간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종의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필연성에서 유래되

었기 때문에 필연적 실체이신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필연성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모순이 생길 것입니다. 영(靈)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상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바쳐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할 최고의 주인으로서 모셔야 합니다. 나와 마주치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어려움에 부딪칠지라도 기도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분과 소통하게 하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밤에 달빛조차 나의 길을 밝히는데, 하물며 창조주 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묵고(默考)만 하고 계실까요?

- 편집장 이동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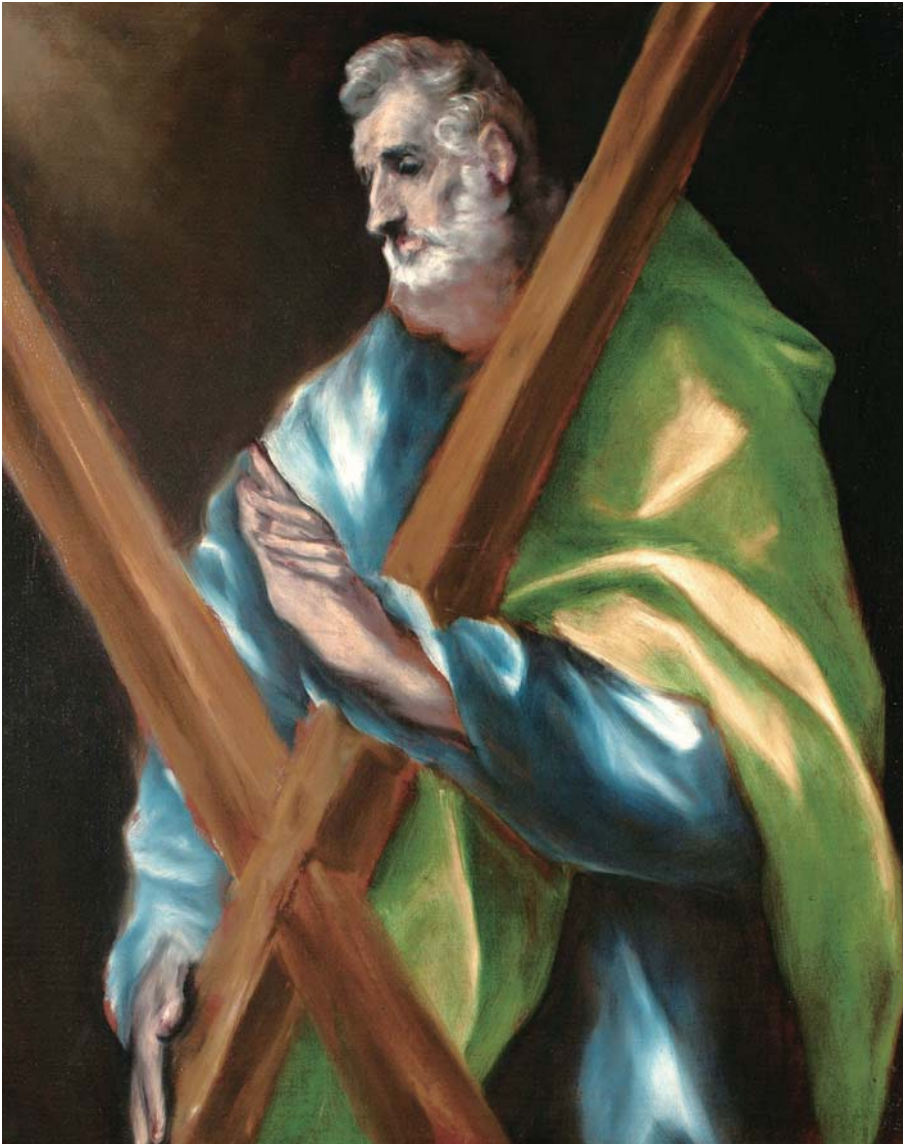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 틀린그림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마가복음 2:1~12 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마 2:11)  
위, 아래 그림에 5군데의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엘 그레코(El Greco), 유화, 100×80cm, 1612

## 『성 안드레』

Saint Andrew

비잔틴 양식과 서유럽 화풍을 결합시켜 독특한 스타일을 만든 그리스 태생의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El Greco)의 『성 안드레』. 이 그림에서 보이는 X자 모양의 십자가는 “안드레 십자가”라 불리는데, 이것은 그가 순교할 때 예수와 같은 모양의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 못 된다면서 그런 십자가에서 죽게 해 달라고 했다는 ‘전설’을 반영한 것이다. 서구 국가의 국기에는 종종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중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안드레 십자가로 되어 있다.